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電力案推移如何로는 政府重大決意?

兩院協議會審議注目

【東京電話同盟】問題의 電力案이 文字그대로最後까지 難航을繼續하야 마침내 會期를 一日間延長하고 貴族院의 修正案을 中心으로 兩院協議會에서 檢討가 進行되게되엿는데 同協議會에서 論爭의 中心이되는것으로 豫想되는것은 第十五條와 第九條의 修正이요 特히 第十五條의 修正에 關하야는 貴族院側에서도 新會社擁護와 完全賠償主義를 一貫한것으로『勅令의定한바에 依하야』를 削除하기를 强硬히 主張함에 對하야 衆議院側에서도 出資者側을 擁護하는見地에서 어디까지든지 同案의『出資者의同意잇는 境遇에는』의 削除에 反對하고 他方政府側은 그後研究한結果 貴族院側의完全賠償主義에 依하야『勅令의 定한바에 依하야』를 削除함은 매우 難色을 보이고잇서 三者의 主張이 對立하는 狀態에 잇스므로 二十六日의 兩院協議會 에서는 아직 相當한 紛糾가 豫想된다 그러나 政府로서는 電力案의重要性에 鑑하야 어디까지든지 政府의 同意할수잇는 修正案을어더 成立하기를 確信하고 또期待하고 잇스나 兩院協議會와貴衆兩院의 情勢如何로는 重大決意를 鞏固히할必要에 切迫하엿다고 觀測되야 同日의審議狀況如何에 依하야는 議會後의政局의 動向을 支配할것으로 그趨移는 重視되고잇다

貴衆兩院協議會

衆議院側質問終了

【東京電話同盟】電力案에 對한 兩院協議會는 二十六日午前十時二十分부터 院內兩院協議室에서 開會하고 貴衆兩院協議員이 全部出席하야 爲先抽籤한結果 議長으로 貴族院側의 井上匡四郎子가 當選하고 即時議事에 드러가 衆議院側으로부터 小川鄕太郎氏가 貴族院再修正案의 各條項에 亘하야 質疑를하야 그中 特히管理法第一條 會社法第九條 第十五條第二十一條 第三十一條의 各條項에關하야 詳細한 質問을하고 이에對하야 貴族院側으로부터主로 堀切善次郎氏 岩田宙造氏가答辯의衝에當하야 一月質問을 終了하고 同十一時四十五分에 休憩하엿다

貴族院 再修正案中難點

【東京電話同盟】電力案에 對한 兩院協議會에 臨함에當하야 政民兩黨에서는 二十五日夜에 小川鄕太郎、大口喜六兩氏의間에協議를하엿는데 貴族院再修正案中問題로되어잇는것은 會社法第九條 第十五條、第三十一條及電力管理法案第一條의 四點이요 그中에도 第十五條가 最難關視되고 同條一項中『勅令의定한바에』를 削除한것은 政府原案을 變更하야 無制限으로 株券을 買入하고 支給할수잇게 될터인데 이는 妥當하냐 아니하냐 또 同條三項의『出資者의 同意잇는境遇』를 削除하고 政府原案대로 두엇스므로 依然히 憲法上 所有權侵害問題가 남게되야 不合理하다고하고잇다

兩院協議會 正副議長決定

【東京電話同盟】兩院協議會의正副議長을 左와가티 決定하엿다

貴族院議長 井上匡四郎子
副議長 矢吹 省三男
衆議院議長 櫻內 幸雄
副議長 大口 喜六

兩院協議會委員

【東京電話同盟】電力再修正案에 對한 貴衆兩院의 協議委員은左와갓다

衆議院 櫻內幸雄 俵孫一 小川鄕太郎 櫻井兵五郎 大麻唯男(以上民政) 砂田重政 大口喜六 川島正次郎 濱瀨提矩雄 志賀和多利(以上政友)

貴族院 兒玉秀雄 井上匡四郎 堀切善次郎 風間八左衛門(以上研究) 矢吹省三 飯田精太郎(以上公正) 細川護立(火曜)坂野鐵太郎(同成)岩田宙造(同和)岡喜七郎(交友)

國共軋轢激化

六次代表大會압두고

【香港二十五日發同盟】國民政府內 國共兩黨의 內部的紛爭은六次全國代表大會를 압두고 더욱 熾烈하야 共産黨의 勢力擡頭에 對하야 蔣介石直系의 陳立夫一派對共産黨〃쿠러타〃計畫等이나와 猛烈한 軋轢을繼續하고 그때마다 蔣介石의 鎭撫에依하야 無事하엿스나 蔣介石은 第八路軍을 改編하야 第十八路軍으로 하고 朱德을 指揮官에 任命하야 朱德麾下의 二萬과 中央直系軍 約三萬을 合하야 第十八路軍을 五萬으로하야 朱德의 總指揮下에、蔣直系를 軍長에 任命하야 最近에 갑작이擡頭한 朱德의 勢力을 制抑하려하는魂胆이라하고 이는 從來부터 國共의相互猜忌疾視의 表現이라하야 注目되고잇는데 六次會議를 압두고 結局 兩黨의軋轢은 表面化하야 今後의動向은 注目된다

獨墺合倂에伴한 亡命者救濟案

米헐長官列國에提唱

【羅馬二十五日發同盟】米國政府는 헐國務長官의 名義로써 二十四日에 英、佛、白耳義、和蘭、伊太利、瑞西、丁抹、瑞典 諾威、及 米洲二十一個國政府에 對하야 獨墺合倂에 基因하는墺太利의 外國亡命者救濟案을 提唱하고 그協力을 要請하엿는데 伊太利官邊은 헐長官의 提案에 對하야 頗히冷靜하야 UP通信社羅馬支局은 二十五日에 羅馬官邊의報道라하야 傳하는바에依하면 伊太利政府는 以上 米國政府의提案에 參加를 拒否할模樣으로 正式으로回答하리라 觀測된다 (寫眞은 헐長官)

政治的亡命者救援案 루大統領支持

【웜·스프링스二十五日發同盟】目下 南部諸州를 視察旅行中인 루즈벨트大統領은二十四日에 헐國務長官이 提唱한 獨墺合邦에伴한 政治的亡命者救濟案에對한支持를 表明하고 二十五日웜·스프링스 에서 左와가티말하엿다 헐長官의 提案主旨는 獨墺合邦에伴한 政治的亡命者에 對하야 米國이庇護를주려하는것인데 이提案은獨墺亡命者뿐아니라 蘇聯邦、西班牙 伊太利等各國의 亡命者에 適用하게될것이다

亡命者救濟提案 英도受諾

【倫敦二十五日發同盟】英國政府는 獨墺合倂에伴하는 亡命者救濟에對한 米國政府提案을 諒解하고 近近米國政府에對하야 同案을受諾하는回答을 發하리라確聞한다

中支中華民國 維新政府成立式

廿八日南京서擧行

【東京電話同盟】二十六日에 가장 確實한情報에 依하면 中支中華民國維新政府는 二十八日午前十一時三十分에 南京에서 盛大한 成立式을 擧行하고同時에 그政權政綱을 中外에 聲明하고 北支中華民國臨時政府의 傘下에 統合하야 明朗中支의 建設에邁進하게되엿다

日華經濟協議會 今日成立

【北京二十六日發同盟】日華經濟協議會設置에 關한 覺書는 豫定을 變更하야 結局二十六日午後三時에 北京外交大樓에서 北支方面最高指揮官寺內大將代理와中國臨時政府行政委員會委員長王克敏의 間에 正式調印을하고同協議會는 이에 北支經濟開發의最高指導機關으로 誕生을 하게되엿다 右覺書調印後 日支兩國委員氏名을 交換하고 同四時부터第一回會議를 開하기로 되엿는데이와同時에 軍當局과 臨時政府는各各當局談으로써 同協議會의成立宣言과 日支提携經濟開發의根本方針을 中外에 宣明하고兩國委員의 氏名을 發表할豫定이다

大上海建設에 阻害犯嚴重取締

【上海二十五日發同盟】陸海軍當局은 二十五日에 布告文과 當局談으로써 大上海建設을 阻害할 念慮잇는者를 嚴重히 取締할것을 宣明하엿다

◇布告文

左記地域內에 잇는 土地의賣買讓渡、抵當權의 設定 其他 土地에 關한 一切의 權利의 得喪、移轉又는 管理에 對하야契約을 締結하고 取引을하고 又는 委任을밧고 或은 該地域內에서 營造物을 建築、擴當하는者는 陸海軍特務部에 申請하야許可를 受함을 要함

記

劉河鎭、嘉定、南翔鎭、七寶鎭、上海縣、拓林城을 貫通하는 以東沿岸에 至하는間의地域

昭和十三年三月廿五日
大日本上海方面陸軍最高指揮官
大日本上海方面海軍最高指揮官

英國의再軍備는 獨、一國이目標?

英國勞働評議會首腦部에 췜벌린首相이漏說

【倫敦廿五日發同盟】췜벌린首相은英國의 再軍備工作을 促進하기爲하야 最近자조 勞動團에 呼訴하야 그積極的 協力을 要求하고잇는데 AP倫敦支局의報道에依하면 췜벌린首相은 어듸까지든지 勞働團의 協力을 確保하기爲하야 去番의 英國勞働評議會의 首腦部와의 會談의 一席上에서 英國再軍備의目標는獨逸國이라고 漏說하엿다고한다

南『티롤』獨逸人

伊、分散移住企圖

【羅馬二十五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獨墺合倂의 新事態에 對處하기爲하야 伊太利領 南티롤에 在住하는 獨逸人을 伊太利全國에分散移住케할 計畫을 考慮中이라고한다 獨墺合邦成立當時에 伊太利總統은 獨伊兩國國境 브렌넬嶺을 境界로하고 獨逸은어를넘어 進出할意向이 업다고保障하엿스나 伊太利로서는 그가 티롤地方에 二十五萬의 獨逸人이 集團的으로 在住함으로今後 紛爭의根源이될 念慮가잇서 그가튼紛爭을 未然에避하기爲하야 左와가튼分散 移住案을考慮하게되엿다고한다

激戰四時間後 二千共産軍擊退

敵軍遺棄死體六百、負傷一千 奧村部隊의猛擊戰果

【太原二十六日發同盟】奧村部隊는 二十三日鞏村(沂縣東方二十粁)西方에서 約二千의 共産軍을攻擊하야 激戰四時間後에 이를擊滅시켯다 敵의遺棄死體는 約六百이요 負傷은一千을 超過한다 또 同夜 十南那村(沂縣東方約十六粁)에 宿營하자 午後九時頃에 千數百의敵兵이 猛烈히夜襲하여왓스나 奧村部隊의 反擊을만나 擊退되엿다 이戰鬪의 我軍의 損害는戰死一 負傷六이다

我軍戰死傷十四名

【新鄕二十五日發同盟】二十四日午後十時頃에富田部隊는三十里鋪附近의 敵掃蕩을爲하야 東進中 定遠南方約三里의 地點에서 一千餘名의敵과 遭遇하야 交戰八時間後 今朝이를 南方에 擊退하엿는데 敵遺棄死體는 三百二十의 多數에 達하고 我方은 戰死傷十四名을 내엿다

敵七十師大打擊

【石家莊二十五日發同盟】山西西南部를 掃蕩中인 我〇〇部隊는 二十五日에 午城鎭 大寧의 兩地(縣石南方約二十里)附近에잇는約 一千五百의敵(第七十師)을 攻擊하야 激戰後에敵은 死體二百 투러二十七을 遺棄하고 我方의 損害는 겨우負傷二名뿐이다

【石家莊二十四日發同盟】二十四日未明에 約一千五百의 敵遊擊隊는 原縣의我守備隊를 襲擊하여왓스나 守備隊는 即時이에應戰하야 敵은死體二百五十 小銃七十을遺棄하고 若干의捕虜를남기고敗走하엿다

長垣占領

【北京廿五日發同盟】〇〇枝隊는 二十四日以來 河南省 北部長垣(新鄕東方七十四里)에잇는 敵情探査中 敵과遭遇하야 激戰後마침내 이를 擊退하고 二十五日午前十一時에 我枝隊는 長垣을占領하엿다

時事解說

墨西哥外資排擊

◇墨西哥政府가 最近 外國系石油會社財産收用令을 發布한데 呼應하야 墨西哥勞働組合은 一齊히 國內의 英米石油會社十七社를 [illegible]占領하야 [illegible]한事態를 示現하게되엿다。今回의事件은 明確히 國家社會主義國의 對英米 政治[illegible]의 一表現으로 어는 國家[illegible] [illegible]을 [illegible]하는 英米를 [illegible]나스氏를大統領으로 [illegible] 墨西哥政府가 英米의 政治[illegible]的壓迫을 反擊하고 墨西哥의 完全한 獨立을 達成식히려하는 運動이라할것이다。

◇墨西哥의 石油生産은 其九割五分까지가 外國石油會社(主로英米)의所有이다。現大統領카르데나스氏는 昨年三月 大統領으로써 國有石油管理局을 設置하야 國內價格과 供給의統制를 決하는것으로 石油統制를 開始하엿다。現在世界燃料[illegible] [illegible]가 重大化하고잇는 [illegible] 墨西哥政府의 措置는 英米를 크게 刺戟하엿다。카르데나스大統領은 該法發布에 際하야 墨西哥政府는 國內의 外國系石油會社의 旣得權益을 尊重한다고 [illegible]하엿스나 外國系會社에對한 壓迫은 漸次로 强하게되엿다 英米側은 카大統領의 政策을 左傾化하엿다하고 墨西哥는 赤化한다고 말하는者도잇스나 實狀은 國家主義로 英米等外國에 抗拒하려하는것이다。

◇[illegible] [illegible]으로 [illegible] [illegible]하여잇는만큼 墨西哥油田을 [illegible] [illegible]供給源으로 [illegible]大視한다 그러므로 米國은英國의 墨西哥進出을 그리 질거워하지안는나마지 米國은 墨西哥大統領이 너무 [illegible]的이라고 反政府派를 煽動하야 [illegible] [illegible]을 樹立하려하여왓다 그러나 現大統領은 外國의援助를 밧지안코 自力으로 墨西哥를 統治하고 自國의經濟를 英米資本으로부터 [illegible]식혀 同國의 完全한獨立을 確保하려하고잇다。

馬産十五個年 四萬頭增殖計畫

初年度經費廿二萬五千圓計上 總督府에서內容發表

總督府에서는 國防上見地에서 十八個朝鮮馬의 增産計畫을 樹立하고 十二年度부터 아므로十八個年計畫으로 改良馬二萬五千頭를 生産하려는中인데 支那事變을 契機로하야 急速히 그增産을 [illegible]하야 一層擴充할必要를 느끼고 十五年으로 短縮하는 同時에 二萬五千頭를 四萬頭로하야 十三年度부터 그增産을擴充키로하고 廿二萬五千圓의 豫算을 計上하엿다 그中 補助額의 增加 五萬六千九百圓 種馬牧場擴充費 十六萬二千圓 新營費 二萬七千九百圓 馬政機關擴充費 二萬二千圓 等이다 그細目은 다음과 갓다

◀馬政機關充實을爲하야 技師二名、技手十三名等을 總督府와 地方에 配置하고

◀基礎牝馬의 充實을 爲하야 每年內 二百五十頭를 購入하야 民間에 配付할 計畫을 事業年度短縮과 增産目標頭數의 增加로 年 六百頭로 하고 維持種付(牡馬의)獎勵는 十二年度가 種馬의移入 十頭이든것을 三十頭로 하고

◀馬의利用은 獎勵는 農馬利用의 獎勵五個所를 十一個郡으로 하야 二千二百圓을補助하고 그 指導者補助는 五百五十圓、馬耕具等購入補助 一萬二千圓을 計上하고

◀馬共進事業助成을 [illegible] 十一郡으로하고 [illegible]百圓補助

◀[illegible]年에 [illegible]한 [illegible]로 [illegible] [illegible]補助六郡을 十一郡으로하고 每郡五百圓補助

◀馬取引[illegible]은 [illegible]購入[illegible]助六十頭를 百十頭로하고 一頭二[illegible]

◀[illegible]補助는 十三年度부터 [illegible]하야 全額千五百圓

◀種馬牧場擴充費로 技手二名[illegible]員二名을 增員하는것等이다

公眼科 京城府[illegible]洞町四四番 電話光二〇七 醫學博士 公炳禹

兩院協議會 小委員選出

【東京電話同盟】兩院協議會는 二十六日 午後一時半에 再開하고 即時 兩院修正案의 妥協點發見에 對하야 各各左記四名의 小委員을 選定하야 具體的協議를 進行하엿다

◀貴族院 井上匡四郎子(研究)矢吹省三男(公正)堀切善次郎氏(研究)岩田宙造氏(同和)

◀衆議院側 櫻內幸雄氏(民政)大口喜六氏(政友)小川鄕太郎氏(民政)砂田重政氏(政友)

衆議員協議員의 態度決定

【東京電話同盟】電力管理法案에 關한 衆議院側의 兩院協議委員은 二十六日午前九時半에 院內議長應接室에 參集하야 兩院協議會에 臨할態度에 對하야 協議를 하엿는데 爲先貴族院側으로부터 再修正案에關한 說明을 聽取하고 이에 對하야 質問을한後 小委員으로하여금 速히 兩院協力에依하야 成案을엇도록 努力하기로 一致하고 同十時十分에 散會하엿다

리투아니아國新內閣 미로나스僧正組閣

【카우나스二十五日發同盟】리투아니아大統領스메트나氏는 츠베리스內閣總辭職의 結果 二十四日 미로나스僧正에게 新內閣組織을 委囑하엿는데 미로나스 僧正은 組閣에 成功하엿다

大同及綏遠에 設置 領事館出張所

【東京電話同盟】外務省은 北支의 大同과 綏遠에 張家口領事館出張所를 設置하고 來四月一日부터 開所할것을 二十六日에 告示하엿다

人事·集會

◀畑好氏(金山地方法院判事)二十八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赴任豫定

辭令

三月十五日發令(朝鮮總督府)
總督府慶北道郡屬 羅 智 綱
任總督府郡守(七等)
命慶尙北道漆谷郡在勤
(榮州)同郡守 金 圭 年
命慶尙北道尙州郡在勤
(盈德)同 權 寧 世
命慶尙北道榮州郡在勤
(慶山)同 朴 浩 根
命慶尙北道盈德郡在勤
(淸道)同 蘇 鎭 禹
命慶尙北道慶山郡在勤
(靑松)同 朴 文 雄
命慶尙北道淸道郡在勤
(義城)同 權 重 煥
命慶尙北道靑松郡在勤
(漆谷)同 高 互 明
命慶尙北道義城郡在勤
(慶南咸陽)同 李 玫 河
陞敍高等官四等
(全北金山)同 吉津 五郎
陞敍高等官四等
(安州農業)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岩山 壯一
陞敍高等官五等
總督府稅務監督局副事務官 宋 世 鏞
(慶北尙州)總督府郡守 崔 秉 轍
依願免本官

八面鋒

◇中央卸賣市場問題가 京城府會에서 論議에는올낫스나 南大門市場關係를 言及한 議員이 업섯슴은遺憾。

◇南大門商人自體가 吾不關焉의態度이니 더구나 議員들이야 恠異치아라할가。

◇都大體 全般的으로 實際經濟問題에 좀더 關心이잇서야할것인데……

◇傳染病豫防의하나로 鼠一匹에 金三錢씩주고 잡어오라해도 가저오는사람이업다고。

◇左 傳染病都市의 惡名을 듯는府民의 衛生思想이 普及안된證據라。

有名新書籍六割引提供

和英併用ペン字入 新式辭典 定價2·00 特價·80 送料·12
和英併用ペン字入 机上辭典 定價2·00 特價·90 送料·12
ペン毛筆三體入 明解新辭典 定價1·80 特價·90 送料·12
音訓書引 模範漢和辭典 定價1·50 特價·75 送料·12
新式六法全書 定價2·20 特價1·30 送料·12
英語入り日常用語漢和併用 新辭林 定價2·00 特價1·20 送料·18
ペン字入 現代書翰大辭典 定價3·00 特價1·45 送料·21
加除式現行書式大全 定價3·00 特價2·10 送料·45
ベスト英和辭典 定價2·50 特價1·20 送料·12
ペン毛筆七體字典 定價1·50 特價·70 送料·18
十分間大演說集 定價1·30 特價·70 送料·18
生殖器圖解와性交論 定價1·80 特價·90 送料·18
新語常識辭典 定價1·50 特價·95 送料·12
新明解式漢和大辭典 定價4·50 特價2·30 送料·62

注文法 ●特賣期間ガ切迫シマシタカラ至急注文下サイ●特價販賣ニ付振替或ハ爲替ニテ實費代ニ送料ヲ添ヘテ前金注文ノコト●代金引換ヘ一切御斷リシマス

三省出版部 東京市向島區東三ノ一六 振替東京一六三三九番

京城貫鐵町二八(鍾閣後) 肋膜病專門 海雲內科醫院 醫師 李圭暉 電話光三三八六番

3月28日より上映 明治座 曙光

東洋平和への礎を築くこの一篇 戰亂と天禍に怯へし隣邦支那四億の民衆に今や世紀のシイコウン(あかつき)が輝いた 東洋平和への…… 新しき大地… 見よ… 四億人の歷史を……

新しき翅 天國慢步

돈버리의王 一夏의利金五千圓 高級 アイスケーキ 機械 其他各種 冷凍機特價販賣 豫約開始 釜山府大廳町通り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型錄進呈。製造營業秘法傳授

아야! 참말여라 李花子 / 새打鈴 金福姬 / 바다의하소 王壽福

卸 ターナー萬年筆 製造本舖 田中吉商店 カタログ進呈

アモンパパヤ 여드름 죽은깨 パパヤ洗粉

府內私立初等學校도 授業料一齊引上

八十錢을 一圓으로 八十錢以下는 八十錢으로

各學父兄에게通知

경기도내공사립초등학교에서 전시경제의 영향으로 각종물가가 등귀됨을따라 학교경비지출의증가를 이유로 [illegible]하야 사월신학기부터 수업료를 월액일원이상올리기로결정된데따라 시내각사립초등학교장회의에서도 수업료인상을 결의하엿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수업료인상선종은 버단[illegible]공립학교에만 그치지안코 부내공립보통학교에서 수업료를일제히 월액일원을 올려일원으로함에따라 사립보통학교에서도 수업료를 올리기로되여 수만의부형의 호주머니를가볍게하고잇다

즉 지난삼일 시내사립보통학교장회의에 이문제가나서 현재사립보통학교 수업료는 팔십전으로 그이하 각종이 잇스므로 현재팔십전받는 학교에서는 일원 그이하 학교에서는 팔십전으로 올리기로 결정되여 수일전각학교로부터 학부형에게 그뜻의 통첩을 보내기로된것이다

택시深夜運轉休止案 總會서兩論對立

結局先進都市의資料를硏究하자고

執行委員에게一任

전시체제아래에서는『까솔링한방울은피한방울』이란는 표어가생기니만치 정부의 까솔링소비에대한 적극적소비통제책에 순응하야 종로부에서도 전번부터그대책을 협의중이라함은 루보한바와갓거니와 국책의전선에다따라 까솔링소비의 대종인 경성시내택씨업자의 단체인 경기도자동차협회 택씨부에서는 이십오일황금정(黃金町)삼정목삼백사십이번지동협회본부에서 오십오업자가모혀 회의를열고 까솔링소비절약에대한대책으로 『심야운전휴지제』(深夜運轉休止制)를동의하엿는데 이제도는 하로동안에 오전두시부터 오전다섯시(십일월부터삼월까지) 또는여섯시(사월부터시월까지)까지는 심야로통행이 극히적은때이니 택씨운전을 휴지하는제도로 원측으로는 심야운전을 휴지하나 급병환자기타긴급한경우에는 제외로하자는안과 원측으로는 심야라도 운전하나 그대신운전대수를 극히주리자는안과의 두의견으로 난호혀저서어느쪽으로 결정을보지 못하고 일단동업의집행위원에게 그연구를 일임하기로되여 제일회연구위원회를 어느날에열고 선진도시의실시하고잇는 자료를 중심으로 신중연구를 거듭하기로 되엿다

어날회의에는 어바게 까솔링 기타자동차 부분품이 폭등하얏슴으로 료금을올리자는 의견이대두하엿스나 이것은 대단중대한 문제임으로 이여시 전기 집행위원의연구결과를 기다려 결정하기로하고 동여섯시 산회하엿다

醉漢暴行

시내삼판통(三坂通)이백일번지김동호(金東浩)(三二)는이십사일오후십시경에 술이대취하여가지고 시내삼판통(三坂通)일백구십사번지 큰거리에서 때마침 통행하던 [illegible]내공덕정(孔德町)삼십육번지 최범이(崔範伊)(二八)에게 무단히폭행을가하여 최범이의 앞니(前齒)세개를 부러트리고 무수란타하여노코 자기집으로 도라가는것을 용산서원이 체포하여 엄중히 취조중이라고한다

滿洲行旅客洪水

最近三個月間 一日平均千名旅客이往來

鐵道局釜山、安東間列車增發

만주방면으로 가는여객이 무척만허저서 철도국에서는 기관차가 끄을수잇는 최대한도까지 차량(車輛)을 증결하야 수송능력을내고 잇는터인데 최근에조사한바를보면 만주방면으로가는 여객만으로 열월에는 일만육천팔백육십인 이월에는 이만사백육십인 삼월에는 삼만이천배명이여서 하루에 평균일천칠십인이나 여행한세음이다 작년동기의 열월평균 여객사백오십인에 비하면 배이상으로 증가하엿다 이것을 비례로보면 열월에는 삼십칠『퍼센트』 이월에는 삼십칠『퍼센트』 삼월에는 일백삼십칠『퍼센트』가 모두 동기에 비하야 증가하야서 여객의 홍수를이루고잇스므로 너무나엄한 세월에 철도당국에서는 도리어 머리를 알코잇다

그리고 열월 이월 삼월 석달동안 만주 조선내지사이의여객수효를 보면 작년동기에 비하야 다음과 가튼 증가를보이고 잇다한다

▲만주서 떠나 조선 내지로간 여객은 열월에 어십구퍼센트 이월에 십륙퍼센트 삼월에 사십칠퍼센트이엿스며 ▲내지서 떠나 조선에도착한 여행객은 열월에 삼십삼퍼센트 이월에십퍼센트 삼월에 이십이퍼센트이엿스며 ▲조선서 떠나 내지로간 여객은 일월에 이십오퍼센트 삼월에 어퍼센트 이월에 이십이퍼센트이엿고 ▲급행을 이용한여객은 일월에 이십이퍼센트 이월에 십칠퍼센트 삼월에삼십퍼센트이엿다

再次嘆願書提出

淸川江河川敷地問題

三千餘農民死活問題라고

【平南支社發】 칠백여호삼천여명의 사활문제로서 강경히반기를 들고 차위오는 영남안주군연호면(安州郡燕湖面)파그이접지 열대에잇는 청천강하류(淸川江下流)하천부지 경작연고자들은 생활의자위책으로 경작조합(耕作組合)까지 조직하고 그 대책에 에대하야 어미 영남도당국과총독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하고지금에이르도록 그처리를 기다려왓스나 한등 이러타할소식이업스매 이제아프로 얼마남지아니한 경작기를 압두고 하로속히 수선년전 부터 번농사와 로초(蘆草)재배를하여 호구책을수립하여오든 우리들에게 경용 (占用)허가를 달리하야 제이차로 이십삼일부로평남도당국에 제출하고 총독부에는 경작연고자대표 박하진(朴夏鎭)씨가 이십사일 상경제출하기로 되엿다한다

拳銃과實彈을 發見屆出

이십삼일 부외고양군 지도면 토당리(高陽郡知道面土堂里)삼백삼십륙번지 리상우(李相雨)(二五)의사용인부리묘산(李妙山)외한명은 그면화정리(花井里)이백십륙번지 헌조가집을헐든중 집속에서『하린톤』회전식 권총한자루와 실탄오십발이 나왓다고곳에보내여 조사한결과 권총을날소판서대문경찰서에 계출하여왓다 그서에서는 곳게원을 현장에보내여 조사한결과 권총을날거서 쓸수업게된것이 판명되엿스나 어떤사람이 이것을 무슨까닭으로 그곳에감추어두엇는냐하야 조사를 계속중이라한다

假齒科醫被逮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이백팔십칠번지의류기상(柳麒相)(三〇)이가 가짜치과의사의 행세를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잇다는것을 탐문하고이래그의 거동을 조사하여 오든중작이십삼일에 안양(安養)모처에서일치(入齒)하는 현장을 용산서원이 발견하고 증거품 으로 석고(石膏)、고무니담 라니다등의 삼십여종을 압수하고 체포하여 와다는데 이자는 작년사월부터 이래이백여명에게 입치를하여주고 오백여원을 편취하엿다는 시내에 도다시가짜치과의 그물에걸린들

國策强調·民衆動員

綜合宣傳週間設定

軍部其他各方面과協力하야

四月下旬부터實施

전시체제하의 국민의 각오를새롭게하야 시간국복에 항하야 거국일치로써 국가재정경제에대한 협력을 강조하고저 총독부에서는 군부기타 각방면과 협력하여 모든기관의 총동원으로전조선일제히 시국에 대한 종합선전주간(宣傳週間)의 계획을세우고 어떤대책의구체안을 어떻게 준비하기로 다시 각기관과 협의중이다 아준비에 착수하기로되엿다대체 사월이십구일부터 오월오일까지의일주간동안 어른시국인식에전하 로 주간동안은 총후국민의정조국민정시청소를 비롯하여 각종전시체제하의 긴장을 촉진하고자 종합선전 조선천지 농촌총동원시켜 전조선의 연중행사를 조선이 되엿다

鐵道線路通行者 今後로嚴重取締

警察과協力、全線에

요지음에 통행하는길이외의 철도선로를 너머다니는 사람이만하서 사고가 자주 생기므로 철도국에서는 이십륙일부터 룡산선(龍山線)에서 경찰서와 협력하야 엄중히 취체하기 시작하엿다 이뒤로는 전조선각선(全線)에 대해서도 종해보다 일층엄중히 취체할터이라한다

新設郵便所

체신국에서는 오는 삼십일부터 다음의두곳에 우편소및 우편취급소를 개설하기로 되엿다 한다

水豊郵便所(平安北道朔州郡九曲面水豊洞)

藥田郵便取扱所(平安南道平原郡龍湖面藥田里)

公衆電話통을 깨틀던벙어리

경찰서에페잇는 공중전화통을깨틀다가 소전거부잡힌 벙어리가 잇다 이십오일오전두시반경하여 부내서대문경찰서여페잇는 공중전화실에서 무슨로이한소리가 들려옴으로 경찰관이 달려가본즉 어떤자가 돌멩이로 전화통을 깨트리고 돈을꺼내려고 함으로 그를인치하여다가 방금취조중인데 그는말을 못하는벙어리로 다만박(朴)모라고만하야 취조하는 경관도 머리를 알는중이라한다

內外싸움끄테 팔목끈흔사내

어십륙일 오전열시 사십분쯤되여 부내화동정(花洞町)이백십오번지의이호 신무균(申武均)(三〇)은 내외싸움을하다가 식도로 오른편팔목을 끈허 곳의전병원의 치료를바덧스나 피가만히나와서 중태이다 원인은 지금부부 러 룡년에 김금실(金錦實)(三〇)과결혼하엿스나 사이가 조치못하야 엄마전부터 삼청정 (三淸町)백십사번지 김일문(金日順)(二二)를 첩으로 어더 부자와가터 무엇스므로 풍파가자저오든중 어날도본처와 차옹끄테 때리어보고엇다하야 신무균은홧김에

月尾島潮湯

四月二日부터營業

인천 월미도 조탕(月尾島潮湯)은 오는사월이일부터 금년영업을 개시하기로되엿다 그래서 인천역(仁川驛)대합소(待合所)에서는 그날부터 여객수하물(手荷物)및 부수(附屬)조하물을 취급하기로 되엿다한다

死體發見都合八個

海龍丸掃海作業依然繼續

【仁川支局電話】 루보=해룡환침몰사건의 시체수사작업은 방금도 불주야하고 계속되고잇는데 이십오일오후세시쯤되어 영흥도(靈興島)연안에서 시체한개를 재일조선환(朝運丸)이 발견하고 인천으로가저다가 검시한결과 서산(瑞山)사는 리수남(李壽男)으로 신원이 판명되엇고 어십륙일오전십시에는 대부도(大阜島)부근에서 지나가든 범선이 시체한개를발견하엿다고 제일조운환으로부터 보고가잇서 인천조운지점으로부터 시체를 차지러갓고 어와가튼 시간에 조운회사소속 금천환이 백암도(白岩島)부근을 항행중 시체한개를발견하엿는바 그시원은 서산군이북면당산리(瑞山郡梨北面堂山里) 김창규(金昌奎)(三)로판명되엇다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시체는 이십륙일오전십시현재로 여덟명이라한다

秀英學院을爲하야 野談大會開催

學院維持費를辦出코저

斯界名星三氏出演

시내 삼판통에잇는 삼판소학교(三坂小學校)에 유지 곤난에 빠젓다는소문을 들은 야담대가 신정언(申鼎言)、신불출(申不出)、유추강(柳秋岡)삼씨는야당대회를 열어서 그수입으로의원의 유지비를 보태여주기로하고 금삼십일일오후칠시부터 시내부민관대강당에서 야담파만담의밤을열기로 하엿다 그리고 당야엔 번외로조선『하야마벤드』의 음악연도 잇스리라한다

新採用局員에게 鐵道智識을講習

철도국에서는 금년에 새로채용한 사천이백여명의 신입국원에게 도보안과에서는 기술자양성과 의적으로 지금현역자들이 잇도록 큰건물에종사하는 회부에게 일정한자격시험을거처 채용하도록 지금연구중이다 기가 격증함을따라 기계의불완전 도는 취급부주의로생기는 위험이 느러가고잇슴으로 기술자인 접객원을 특히도 긔히두어 항상도라다니며 검사하야 조금이라도 불완전한것은 운전중지를시키는등 단호한처치를 하기로되엿스며 아프로는 특히크고 복잡한 원동기를 취급하는큰공장 큰건물에종사하는 화부에게 는 일정한자격시험을거처 채용하도록 지금연구중이다

原動機取締

京畿道에서技師二名을常置

경기도보안과 통계를보면 작년말현재도내에는 도지사의 허가를받는 대규모의 원동기만이 기관(汽罐)오백여덟대 까스석유기관백구십대 증기기관 스물두대 증관(蒸罐)예순네대 합계칠백여든일곱대로 소관경찰서장에 계출 사용하는 원동기삼천륙백예순여섯대를 합하면 도내원동기수는 실로 사천사백쉰세대라는 큰수자를 보히고잇다

전시체제아래 군수공업의 약진과아울러 군수품공업이 일대비약을 하고잇는것과 도시에는 고층건축물이 늘어갈을따라 공장기계의 원동기와 난방장치의보일러—원동기가 격증함에따라 그검사취체는 지급필요한 문제로되여가고잇다

釜山호텔改名

철도국에는 오륙년전부터 부산철도회관(鐵道會館)으로 명칭을 고처서영업을 해왓는데 오는사월일일부터 더도로 부산철도호텔로 고치기로 되엿다한다

洋料理갑도올은다

京城食堂組合서認可願提出

서양요리값시 올라간다—경성식당조합(京城食堂組合)에서는이실록일 본정서보안계에 서양요리갑을 이항올리겟다고 인가원을제출하엿는데 현재의 현경가격은 소화십년구월에 인가된가격으로 최근파가튼 물가등귀시데에 종전가격으로는 영업을할수업다는것이 이유이며 얼마전『카페—』업자들의 음식물가격이할 인상안가원의뒤를이어 양요리갑도올려야겟다는것이라고한다 자기의주장을 관철할것이다

假飮食店配達 鍮器欺取코被逮

여십오일 오후두시 종로(鍾路)오정목 리은성(李殷晟)의식점 배달 정경모(鄭慶模)가 명국여섯그릇을 충신정(忠信町)이백십이번지 박지성(朴智成)의집에배달하엿는데 삼십가량된자가 자기도 리은성식점의 배달이라고 하며 놋그릇을가지고 도라갓는데 약삼십분후에 종로동정목모전당포에나타난 병목정(竝木町)이백이십칠번지 박수만(朴壽萬)(三〇)이가 전기유기사취범인으로 동대문서에 체포되여 취조를밧고잇다

大豫官專合格者

大學豫科

경성제국대학예과(京城帝大豫科)입학시험합격자는 이십륙일발표되엿는데 모집정원일백구십사명에대하야 조선인은 육십이명으로 총수의 삼할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프로 이공파(理工科)의 설치를 전제로하고 이파(理科)에 사십이명을 더모집하엿다

▲文科甲組(四十二名中朝鮮人十六名)

申鉉碻 梁太東 宋敎憲 金[illegible]
柳定夏 蔡炳鎬 金衛洙 尹君昌
李熙銓 姜鎔俊 金德仁 趙欲熙
李容默 許熙柄 吉永達 李永穆

▲文科乙組(卅七名中朝鮮人十九名)

嚴 燦 林紀洙 洪淳[illegible] 任鐵宰
金在百 文勝[illegible] 吳基鉉 李甫洙
朱[illegible] 李鍾任 徐丙珪 陳[illegible]
尹永[illegible] [illegible] 朴興[illegible]
李晩成 李[illegible] 李康生

▲理科(七十二名中朝鮮人二十五名)

[illegible]文 高[illegible] 高明[illegible] 金永[illegible]
鄭[illegible] 姜重求 [illegible] 吳天根
洪英[illegible] 金永存 李宅洙 朴[illegible]
金[illegible] 黃[illegible] [illegible] 全來宅
李寧均 李海根 吳鉉默 朴明[illegible]
李重吉 吳仁鎬 咸[illegible] 李[illegible]成
黃得炫

(但醫學部에進入할것)

▲理工學部(四十二名中朝鮮人十二名)

○左는京城帝國大學理工學部豫科의關係法令公布上 入學을許可하고 理科第一學年中에編入할豫定

申[illegible] 黃[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鄭[illegible] 金[illegible]明 [illegible] 朴[illegible]
金[illegible] 全[illegible] 金在[illegible] 宋[illegible]

京城法專(六十八名)

[illegible] 吉本稱二 井上[illegible]光 咸[illegible]
[illegible] 李炳[illegible] 宋[illegible] 金[illegible] 橋本
鄭明俊 宋明寬 李[illegible] 徐[illegible]
朴[illegible] 金[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
李[illegible] 李[illegible] 金湘[illegible] 崔[illegible]
朱[illegible]中 崔相均 呂運成 李[illegible]
白世[illegible] 孫[illegible] 孫太基 金炳[illegible]
鶴野[illegible]男 申鉉[illegible] 朴升煥 [illegible]
朴春植 金[illegible] 洪在[illegible] 鄭[illegible]
李[illegible] 山田[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田[illegible]男
鄭[illegible] 宋[illegible] [illegible] 金大[illegible]
[illegible] 金[illegible] 金世[illegible] 金[illegible]
石原[illegible] 金[illegible] 金永[illegible] 李[illegible]
朴日[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千[illegible]
李[illegible] 日野[illegible]郎 鄭[illegible] 洪
[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長[illegible]正[illegible] [illegible] 山城[illegible] 李
[illegible]丸 林[illegible]
李[illegible] 鄭[illegible] 田[illegible] 鄭[illegible]
金[illegible] 朴淳和 李[illegible] 朴[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 金[illegible]一 鄭元[illegible]
朴[illegible] 吳在[illegible] 洪升[illegible] [illegible]
[illegible]相年 [illegible]東[illegible] 李東[illegible] 朴[illegible]

以上 一〇〇名

水原高農

[illegible]科(三十九名中)
金[illegible] 金相[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玉 [illegible]明洙 金[illegible]
宋[illegible] 鄭[illegible] 洪[illegible] 金[illegible]
林[illegible]科(二十三名中)
金東俊 金光[illegible] 許[illegible] 河[illegible]
[illegible]科(二十名中)
金[illegible]和 朴成[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京城高商

[illegible]檢定
洪元[illegible] 金[illegible]大 [illegible]
試驗檢定
[illegible] 李英培 朴容[illegible] [illegible]合[illegible]

京城高工(中朝鮮人二十七名)

紡織學科
金[illegible]洙 金[illegible] 金[illegible]光 [illegible]
[illegible]
應用化學科
[illegible]
白[illegible] 石[illegible] 金在元 金[illegible]
[illegible]
木工科
[illegible] 洪[illegible] 朴[illegible] 元世昌
[illegible]科
田[illegible] 閔[illegible]俊 朴[illegible] 宋[illegible]求
金正秀 文[illegible] 金[illegible]式
鑛山學科
金[illegible] 宋[illegible]大 張仁相 韓海龍
朴台[illegible] 李[illegible]煥 沈相[illegible] 李[illegible]文

以上合計百五名(中朝鮮人二十九名)

京城齒專

[illegible]工學科及[illegible]工學科의 入學許可者는 關係法令이 아직公布되지아니 公表할수업슴으로 學校로부터個人에게 通知키로되여잇다

李元[illegible] 金[illegible] 張仁[illegible] 張[illegible]
申[illegible] 張[illegible] 鄭五相 金玉均
金[illegible] 李[illegible]元 [illegible] 金永[illegible]
李[illegible] 朴[illegible] [illegible] 宋[illegible]元
張[illegible] 宋[illegible] 河[illegible] 金正泰
金[illegible] 文[illegible] [illegible]元[illegible] 李命甲
洪[illegible] 金[illegible] 李 [illegible] 金永[illegible]
張明[illegible] [illegible] 李[illegible] 丁九[illegible]
[illegible] 吳世[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淳
千[illegible] 吳[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秀
鄭允[illegible] [illegible] 朴[illegible] 安[illegible]
張[illegible] 金承[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時永
朴 [illegible] 宋[illegible] 李龍八 宋[illegible]
[illegible] 尹大[illegible] [illegible] 田東秀
黃[illegible] 鄭牛[illegible] 陳[illegible] [illegible]
蘇炳仁 閔東[illegible] 金昌柱 [illegible]坤[illegible]
朴[illegible]夏 趙明月 徐承來

(合格者百四十名中)

崔海月先生夫人別世

천도교제이세교조 최해월선생부인 손씨는 숙환으로 논산군두마면동장리(論山郡豆磨面洞長里)자택에서 료양중이던바 이달이십삼일오전삼시에 별세하얏는데 장례는 이십칠일에 지내다고한다 (享年 七十五歲)

進行中列車에 靑年飛入自殺

【光州】 어십오일오후여섯시오십분 광주(光州)역(驛)발 담양(潭陽)행열차에는 담양군 남면대추리(潭陽郡南面大秋里)압에 이르자 어떠한청년하명이 돌연열차로부터 자살하려함으로 즉시담양서로 급정차를하엿스나 두부기타에중상을 입엇스므로 즉시담양의원(潭陽醫院)에 동행하야 응급수당을하엿스나 동팔시경에절명하엿다는데 그는담양읍남산리(潭陽邑南山里)사는 리동앙(李龍[illegible])으로 자살하려는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한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蒙古、滿洲로 擴大되여잇고 關西地方과 揚子江流域도 氣壓이 高하여저잇다 低氣壓은『오호츠크』海에 有優한것이잇서 東進하고잇는것과 北支那에 弱한것이 發生하고잇다 天氣는 樺太、北海道、靑森附近이 흐리여 風雨雪이 念慮한外에는 日本內地、朝鮮、滿洲等은 大體로 天氣가 良好하다

豫報 從來 地方의 오늘밤과 明日은 남새가 좀흐리겟다

京畿道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十二度七

同 最低 三 度三

今朝最低 一 度四

今日正午 九 度三

大膽하게家宅搜索

現金을詐欺逃走

支那人家에또假刑事

형사라고가칭하고 대담하게도 가택수색까지한후 돈든지갑을가지고 유유히종적을감춘 가형사사건이 또 발생하엿다 이십오일오후열시사십분쯤 서대문경찰서관내에 문정(西小門町)구십번지 지나인강구녀(康九女)(四七)의집에 약 삼십세가량된 양복청년은 조선청년한명이 나타나서 자기는 서대문경찰서 형사인데 조사할일이 잇다하고 집안을 삿삿치 뒤지더니 이십륙원이들어잇는 지갑을 자기주머니에너흔후 파출소까지 가자고 전기강구녀를데리고나오다가 어데로 종적을감처버렷다 이급보를바든 소관서대문경찰서에서는 곳형사들을 총동원하야 범인의 행방을 엄탐중이데 피해자는 아편의밀매혐의가 잇는 점으로보아 그약점을 잡아 그것은 아편소행이 아니가 하고 그방면에 주력중이라한다

府會의意見書 內容을決定

道와總督府에提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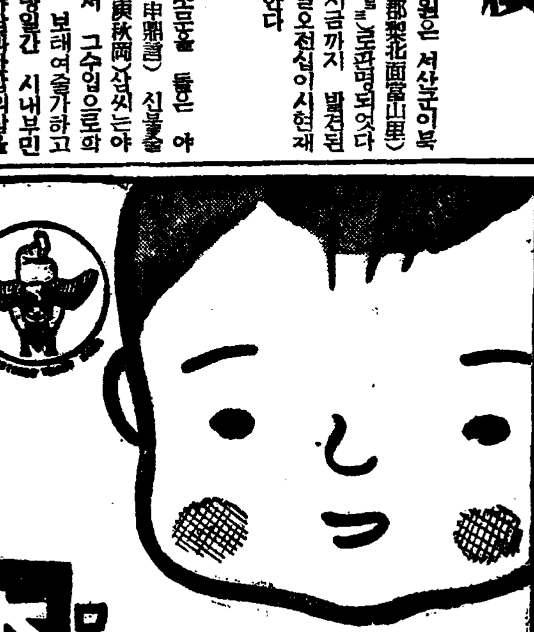
방금개회중인 경성부예산회의에 여러가지의견이 대두되고잇서 그의견서를 총독부와 경기도에제출하기로 상정하기로되엿는데 각의견은 다음과갓다

一、부의 선거때에 호별방문을 금지할것

一、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경성부에 대한 상업、공업、주거등의 지역(地域)결정을 속히할것

一、경성부의방면 전화가설료를 부내와가터 체감하기를교섭할것

一、경성부동부출장소주민의가중 전차임(加重電車賃)을 철폐하도록 교섭할것



森永 合詰 ビスケット

모리나가 비스켓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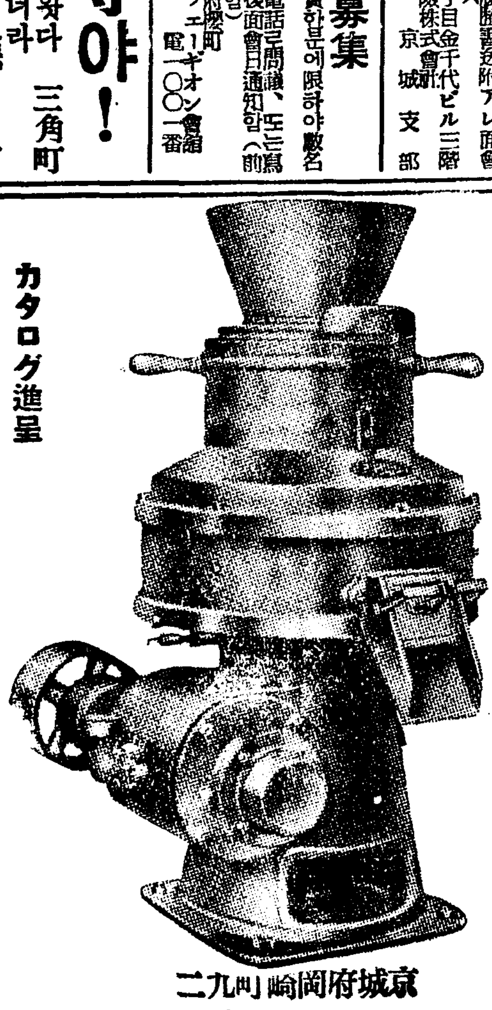
大端히 經濟的이오 滋養이 豊富하고 衛生的이라는 點에서 發育期에잇는 애기네들에게는 업서서는 아니될 必須品으로 생각합니다 다 반드시 愛用하여주시기 仰望하나이다

[illegible] 指定하여 주십시요

製造元 東京森永製菓株式會社
販賣元 京城 朝鮮森永製菓販賣株式會社

カタログ進呈

八千代精麥機 無砂 無水用



京城府岡崎町二九
二和商會
電話龍山九六五番

福守야! 내가서울왓다 三角町으로 곳오너라 朴德八

女給募集
一、高尙、眞實한분에限하야 數名採用함
一、希望者는電話로問議、또는寫眞(前借)에送付하면面會日通知함(前借한도평)
平壤府櫻町 カフェー ギオン會館 電一〇〇一番

社員招聘
一、鮮內各地事務所新設二付鮮在社員並二所長數名採用ス
一、希望者履歷書送附アレ面會日通知ス
京城府大和町四丁目金千代ビル三階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京城支部

社員招聘
一、年齡二十五歲以上經驗の有無に不拘努力奮鬪の士を望む
一、希望者履歷書送れ面會日通知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二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自動車 運轉手責任養成 學費低廉!設備完全!最高權威!朝鮮總督認可 京城自動車學校(京城府太平通)로申込、來問歡迎

家具 事務用椅子卓子 鏡棚 戶棚 其他特製各種 有安價販賣 注文應需 三丁目(本町) 根商會 電本②五〇九一

醫師招聘 至急 金百圓內外 待遇面談 京城府仁義町一六五 尹泰炳

醫生招聘 至急三十才以內新醫生經驗有者 待遇面談 京城府壽松町一四三 申龍慶

朝報案內

氣質과陽氣나水氣가過히不實한分과婦人血分의諸病과子宮病이게신分이시며 淋疾과梅毒의諸病으로서病院의治療나洋藥과漢藥等百藥을服하여도終是快效를보지못하는分과或은나엇다해도자조再發되야根治가되지안는分은 京城蓮池町廿八番地中央藥院保健部로四錢切手添同하시요반듯이詳細한內容과百發百中其効를如神하야萬無一失히根治되난稀世의秘劑를無償으로回報합니다

虛弱性病

福音 實費로提供하는 驚異의明品 [illegible]

桃屋의 桃의 罐詰 品質第一等
날것보다맛잇는 白桃、黃桃

OKEH 傑作盤

고집한풋사랑

오—케—레코—드

南仁樹

開業廣告 當會社는昭和十三年二月一日부터樂天號, 南大門, 金泉의各地支店에서 各種農業 及 農作物付金融等 一切의業務를取扱함

大邱府南城町三丁目三十六番地 慶北無盡株式會社本店
大邱府田町三十五番地 中央支店
浦項邑浦項洞二二 浦項支店
金泉邑金泉洞一九三의二 金泉支店

果樹苗 農產種子 都賣特價提供 (特價表進呈) 朝鮮京城府南山町八一九 興林農園本店 振替京城一五〇三七番

黃金座

ジャズと唄と踊のオリムピック、ウヨシ·ズヤジ C.M.C

東洋樂壇の王座を獲得す
C.M.C.スウイング·ジヤズ·バンド總動員
オーケーレコード專屬歌手特別出演
岡蘭子 南仁樹 笠井秋子 林菊次郎 趙英淑

日活京都特作 無法者銀平 片岡千惠藏主演
日活多摩川特作 悅ちやんの千人針 悅ちやん主演
同時封切

二月二十七、二十八、二十九、三十、三十一 五日間

春과

肌膚의 衛生

봄철의려정께리로는살거칠、여드름、부름둘보다 더한전엽습니다 정말美容도 魅力도 허문이 엽시되여버립니다

먼저 第一로 살거칠을解消해야합니다! 거츨어젓다해도 그건 것살만이 구더진것이고 決코 內部까지 侵害된것이 아닌故로 손질如何로서 短時日안에 解消시킬수잇습니다! 良質비누로잘써스시고 (이때에뜨거운湯水는避하실것) 레-도구레-무를 흠뻑바르시고 조심성잇게 맛사-지하십시요 優良한 有效成分의作用으로 정말 놀랄만치 短時日의손질로 魅力잇는 柔肌로 甦生됩니다

★

다음에 어느분이라도 第一困難을 느끼시는 여드름、부름의 防止法을 알려드리겟습니다 胃腸障害로 생기는분은 한시바삐 胃腸을 곳치십시요 皮脂의 過剩에因한것의 治療法은 먼저 第一로皮膚를 恒常淸潔히 할것과 레-도구레-무로 손질하실것을 잇지말것입니다! 아시는바와가티 皮脂는 살결의魅力과健康과를 주어주는 源泉인故로 조금만 不潔히 하서도 尿素나 鹽分이나 或은 塵埃가튼것들이 한데뭉치여 거기에 細菌이 寄生해서 여드름이나 부름으로되는것입니다 恒常 皮膚의 淸潔에 留意하시고 잇지마시고 레-도구레-무로 손질하여주십시요! 皮脂의 過剩分泌를 調節하고 細菌의寄生을 防止하고 新陳代謝를 旺盛히하므로 恒常健康과 魅力이넘치는 若肌가 保存될것입니다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레-무

라이온치마 大懸賞 總當選

特殊한成分으로 齒牙를强하게하고、美麗하게하는 라이온치마분、라이온煉치마로서 이와갓흔大賞品을타십시요!!

壹等
(1) 美術置時計
(2) 最新式(미제트小型)寫眞機
(3) 高級空氣銃
(4) 크로무側腕時計
(5) 無線受信機(라디오셋트)
十二名

貳等 萬年筆과 샤푸펜슬세트 四十名

參等 優美箱子入手巾 一百名

四等 스타-자인(스테두)鉛筆(打字) 六百名

等外 라이온치마분(試用判) 殘全部 (但應募者 十萬名單位)

懸賞課題
어느家庭을勿論하고朝夕으로반드시使用하는物件中、虫齒豫防에第一有效한것이 무엇입니가 左記○票를한곳에適當한文字를記入하시오
ラ○オン齒磨 又는 **라○온치마분**

應募規定

一、應募用紙 虫齒를豫防하는가장優秀한齒磨、다음五種中어느것에나 써주십시오
◎라이온煉齒磨(家庭用大形·中形·小形)의外函의後面
◎라이온齒磨粉(特大袋·大袋)의上部를四分之一로分하야 그것을 葉書大의紙面에貼付한後面
◎潤製라이온齒磨 의帶封을떼여 그것을葉書大의紙面에貼付한後面
◎라이온齒刷子(一號形·二號形·三號形)外箱後面
◎라이온齒磨木(一號袋·二號袋)의外裝紙

一、答案쓰는法 應募用紙에다음의四條件을 알기쉽게쓰사요 一、課題의解答 二、住所와姓名 三、希望하시는一等賞品中한가지 四、廣告를보신新聞紙名

一、送付方法 物件을사신販賣店에付託하시면 送料도물지않고 便利합니다、或은直接郵便으로보내도좋읍니다。數가많으면 小包로도關係없으나 送料가不足되면받지않읍니다。

一、보내는곳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日華ビル內 라이온齒磨朝鮮駐在所懸賞係

一、締切 七月二十日

一、抽籤方法 八月上旬、所轄署員立會下에 嚴正하게抽籤함。一等은正解者만을希望別로抽籤하고、二等以下는一等에서當選되지않은것을合하야順次로抽籤함。

一、當籤發表 九月中旬、主要한新聞紙에一等、二等、三等의當選者만發表하고、其外는賞品發送으로通知함。

라이온치마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優美館 電話光三九五
三月二十六日부터大公開 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戀愛交叉點
PCL超大作全發聲 吉屋信子原作 山本嘉次郞監督 母の曲后篇 原節子 英百合子 岡讓二 入江たか子 共演

團成社 光電九五九
二十五日부터 花郞苑地方巡廻告別大興行
正午부터二回興映 大每讀賣뉴-쓰外國產映畫 料金十錢均一
◎夜間上演 ◇金健作 女給과人生 四幕
◇殷鶴山作 第三部落 世上人心이렛소 一幕
四月一日부터西鮮地方巡廻豫定
◎豫告 二十六日부터晝間映畫 마키노超特作 大每讀賣뉴-쓰

若草劇場
三月廿六日より六日間
陽氣な街 / 大每·大朝ニュース / 泣虫小僧
一回 11·40 1·10 1·20
二回 3·00 4·30 4·50
三回 6·45 8·20 8·40
(1) フオツクス作 デイツク・ボウエル 主演
(2) 東寶映畫部提供 藤井貢·逢初夢子
◇東劇二重興行에注意◇ 晝間은映畫 夜間은演劇

東洋劇場
「靑春無情」四幕五場
九月山人作 「뛰여든美人」一幕
大地
料金階下十錢·階上二十錢

桃花劇場
二十三日ヨリ二十六日マデ 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
街は春風
谷間の灯
大每特報 ニュース
男の横顔
大金鑛
姐妃のお百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第一回 二、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少年朝鮮日報

모집서요

도화、습자、작문、동요、그리고 학교안에서 생긴 자미스런 이야기거든 적어 보내주십시요

"귀는 노는날달구 병정은ー딱총놋는사람" 똑똑은한데두 겁을먹고서잡는 우리동생입학시험문제

대체무슨 문제가낫섯든가?

어제까지 집에서 어머니누나 언니겨테서 어리광피고 엉석부리든 어린이들 며칠전 유치원을마치고나온 어린이들이 인제 소학교로가야할날이되엿습니다 아침일직일어나 어머니손에 매달려 아버지를따라 들어선 그학교가 우리집 우리유치원보다는 떡달르지요 엽집순이도 도오고 압집복순이도 모두 아버지따라 한마당에 모혓습니다.

인제 아버지、어머니겨틀 떠나 커다란강당에 모혓다가 한사람식 한사람식 학교에서 시키는대로 새선생님 압책상에 나와섯습니다 어쩌지 마음이 두근거리고방안이 텅비인것갓고 얼굴이 조금 더빨개젓지요. 그런데 무슨애기를물엇습니까? 다시한번 여기다가써보겟습니다.

◇

선생님이 얼굴를처다보시고 우스시면서 너 어듸살지하고뭇습니다 그랫더니 『경기도경성부××정 ○○번지』라고 조르르용하게대답하는 얌전한어린이도 잇섯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정에살어요』라고 대답해도 만족해햇슬것입니다 그러치만 『나동판살어요』 『무교다리건너삽니다』라고 대답하는 아가는 엇것지요 다음 너 일홈이뭐냐하면

『나 옥순이애요』 『성오두어구?』 『최가애요』 이러케 성과일홈을 따로따로 대답하는어린이가 만헛습니다 일홈이뭐냐? 하면 『최옥순이애요』하는게 편하고 조흘것입니다 『너나이 몃살이지』 『여덜살이애요』 『그럼 네나이대로 어바둑돌을 노아봐』 하면 모두 용케 여덜개를 헤여내놋습니다.

그다음 학교일홈을 물엇습니다 다잘들 대답햇서요 그럼 학교는 무얼하는곳이냐? 고 물으면 『공부하는곳이애요!』 이러케 또바또바 대답을 잘들합니다.

이러케 물어보면서 선생님은 몸이잘것나 얼굴볏치 조흔가를 살피기도합니다.

어번엔 좀어려운 선생님앞으로 나와섯니다 처음보다는 마음이 좀 누그러저것도갓습니다 선생님이슬그리고 꼿입、꼿나무그린 조이를 내노흐면서 이게뭐냐?고뭇습니다

『꼿치애요』

『버꼿치애요』(사꾸라꼿치애요)

『그럼 이빗슨무슨빗이지?』

『빨개요』 보다는 『アカデス』라고 대답하는 어린이도만헛습니다 아마 유치원에서나 가정에서 『국어』를 가르킨것순모양입니다.

그다음 전차바퀴우에 전차를올려노코 『이게어디가는 전차냐!』고 뭇습니다 이건 전차우에 달린줄의방향을보고 아프로가는가를 뒤로(또는 여프로)가는가를 뭇는것입니다 그리고 국기는언제다느냐?도뭇고 그다음 국기를 누가다느냐 고물어봣습니다. 그중에는 일년중기다는날을 쪼외는 어린이도잇섯습니다마는 경성날다는게라고 대답하는정도로 쪼숩니다.

『군인병정은 무얼하는사람이지?』

『쌈하는사람이애요』

『딱총놋는사람이애요』

다재미잇는 대답입니다.

언제 이만큼하고 또 다른 선생님아프로 갓습니다.

『자 내가 불르는대로 외여봐 二、五、四、三』

『이、오、사、삼』

『모자、가방、구두』

『모자、가방、구두』

선생님보다도 더똑똑히외는 어린이가 만헛습니다.

어번에 손을그린종이를내노흐면서 『이게 어느쪽손이지?』하고무럿드니 고사리가튼 어린조손을 그린노흔우에 딱마처보고는똑똑하게 『바른(왼)손이애요』 하게대답햇습니다.

그다음은 십전자리 오전자리백동전을 내노흐시면서 『어느걸 가지구가면 파자더만히 사겟니?』 『십전자리애요』 하면서 어런것쯤 누가몰음하구 하는 눈치를 보이는 귀여운어린이가 만헛습니다.

제비고향강남땅 기러기의북쪽나라

철따라오는새들의길을아는 鳥類標識의이야기

봄이 되여 따뜻해지면 제비나 그외에다른 새떼가 날려왓다가 가을이되여 또 날세가치워지면 그새떼들은 다시 어듸로날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 새들은 어듸서 날려오며 또어듸로 날려가는가 하는것이 옛날부터 매우 궁금한일이면서도 알지못하고 내려오든것인데 요지음 와서는 세계 각국에서 조류표식법이라는것을 알어내여 가지고 그대로 해보앗든바 아주잘 알게 되엿습니다.

이조류표식법이라는 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새다리에다가 무슨 표를 해가지고 날려보냇다가 나중에 그새가붓잡히면 그표를 모아가지고서 그새들이 어듸서어떠케 살고 잇섯다는것을알어내는것인데 그표는 어떠케 만든것이냐하면 아주 가벼운 양철에 농림성(農林省)이라고 색이고 그미테 수짜를 색여서 반저ㅅ끼워주드시 끼워 날려보냇다가 나종에 산양가튼것을 할때 새를잡으면 그새다리에 끼워잇는 표를보고서 이것은 언제어듸서 한번 잡혓다가어듸로도라다녓다는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정 십삼년부터작년사월까지에어려케 새다리에 표를해내노흔것이 一百 二十여종류에 十七萬一千마리나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표를 끼워 가지고날려갓다가 다시 잡혀서 그다리에 끼워든표가 되도라온것이 八千三百여마리나 된다고합니다. 이러케 모하본 결과는 새들이 대개일본을 중심으로 비롯빈 어라는데와 불령인도지나(佛領印度支那)라고 하는데를 날려다니면서 겨울을 난다는것이 알려젓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삼월삼진날이면 강남에서 날려와서 작년에 제가드럿든집을 어저버리지 안코 차저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그러타고 합니다.

사진은 제비 다리에 표식을 끼워주는 것과 농림성의 그 표식들인데 큰새는 큰것으로하고 적은새는 적은것으로 하기때문에 이러케 여러가지입니다.

歷史이야기

詩人 李奎報

文一平 先生

고려인종때 시인 정지상을 말햇거니와 시인이규보(詩人李奎報)는 정지상이 죽은지삼십여년뒤에 나서 고려명종(明宗)때 무려 조정에 벼슬하던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규보는유교(儒敎)나 불교(佛敎)나 로자(老子)나 장자(莊子)나 할것업시 다잘알며 글치고서 못본글이 업슬만큼박학(博學)햇고 또줄글도 잘햇습니다.

그러나 이규보는 시(詩)가더용하고시(詩)중에도 여러구(句)되는 장편(長篇)을 더잘햇다고합니다.

이규보는생각이아주 민첩하야 시를 지을때 붓대를 돌면 멈춤이업시 내려씀섯고 또온갓 물건을 두고서 시(詩)를올픈영물시(咏物詩)만가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규보의 특색(特色)으로 말하면 시를 속하게짓고 시를 용하게 짓는것 보다도 언제나 시를 새롭게짓는데 그특색이 잇섯습니다.

이규보는 옛 사람의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뜻대로 자유롭게 시를쓰던 자유시인(自由詩人)이엿습니다.

그의 줄글을 볼때도 자유로운 기분이 떠돌지만 시를볼때도 자유로운기분이 떠 돌옵니다.

정지상시의특색이 말고고운데 잇다면 이규보시의 특색은 새롭고 자유로운데 잇섯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규보를자유시인이라고일커럿습니다.

자유 시인이라 하지마는 오늘날 흔이브르는 자유시인과는 그 의미가 얼마큼 다릅니다.

자유시인 이규보는 그 천재(天才)가 조달하야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의 칭예를 들엇는데 그가여섯살때 벌써 화소성미청(花笑聲未聽)꼿처우서도 소리를 드를수업다라는 시구(詩句)를 지여 사람을놀라게 하엿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소성미청의 시구(詩句)가 얼마나 자미가엿습니까.

그런데 그시(詩)는 시 자체로도 아름답고 새로워 세상에 전할만한 명구(名句)가 만커니와 력사적(歷史的)으로 가장 귀중한가치를가진 동명왕편(東明王篇)가튼것이 잇습니다. 동명왕은 고구려시조(始祖)로서 이규보의시로해서 그 사적을 잘알게 되엿습니다.

童話 귀여운물장수

崔秉和

뻐걱! 뻐걱! 맑은물북이 좁은드시 어리비틀 저리비틀 금방 아프로 꼬구라질듯도하고 뒤로 잡바질드시 하며 물지게를 지고가는 소년을 이동리사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애처러운드시 한편으로는 기특한드시 바라보고 잇섯습니다.

『경호야! 어름비판에 너머질나 조심해라』

이웃집 복희할머니께서 한창 바라보시다가 경호에게 이러케 말슴하시엿습니다.

『복희할머니! 인젠 재법 잘 것죠』 힘닷 할머니를 처다보면서 말하는 경호의얼굴에는 땀방울이 매치고 얼굴은 어려서 새빨개젓습니다.

북악산 너머서 부러내리는 살을 어여내는듯한 매운바람이 휘새어서 부러내려 손이 오리발가리 꽁꽁얼고 물부텃길은 물떠러진곳이 어려부튼테다가 아이들이 핑구를들리고 미끄럼질을 처서 빈몸으로 거러가기에도미끄러웟습니다.

이어름판길을 경호는 저녁에 학교에서 도라와서는 으레히 물지게를지고 이골목에서 그리가깝지안흔 수통까지 서너차례양때를 하엿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사람은 자기집이 넉넉지못해 물장수를 댈수가 업스므로 어린애가 물을 기러다먹나보다하고 예사일가티 생각하겟지만 자세한 사정을 아는사람이면 누구나다 경호를 칭찬하지 안는사람이 업섯습니다.

경호가 남의달리 친하게 지내는 인수(仁秀)집은 살기가어려웟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돈버리가 업스시므로 먼시골로 일자리를 차저가신지 오래되시엿습니다 그리하야 시골아버지에게서 부처주시는 돈만가지고는 여간 어렵지안엇습니다.

그래 물장수도 떼버리고 인수가 물을 기러먹기 시작하얏습니다.

인수는 학교에 갓다와서는곧 추운날 물을기러오느라고 감기가 몸시드러 자리에 눕게되얏습니다. 하로나 이틀만 지나면 나으려니하얏든 인수의병은 좀처럼 날것갓지 안헛습니다.

인수어머니께서는 여간 걱정이 되시는것이 아니엿습니다.

『인수아버지도 안게신데 어룹 어떠케하면 조흐냐?』하시고 여간 걱정하시는것이 아니엿습니다.

『물은 누가 기려옵니까?』

『물은 내가 양동이로 한동식 떠오는데 어름판에 미끄러질가바서 조심은하지만……』

『빌물도 아니신데 물을떠오시다니요 그게 될말입니까?』

그때 인수어머니께서 아이를 배시엿는데 이달이 아홉달째라 몸시 갑버하시엿습니다 그날부터 경호는 생전에 처음 저보는 물지게를 지기시작하엿습니다

『얘 고만둬라』 하시는것을 뜻지안코 수통으로 갓습니다 자기힘의 대중을 잡을수가업서서 한통그득 담엇스나 도무지 어려스기는 하지만 작고 뒤로 자빠지는듯해서 삽분이일을 다며리면서 거러갓습니다. 그래물중두리를 채우랴면 대여섯번길어야 되얏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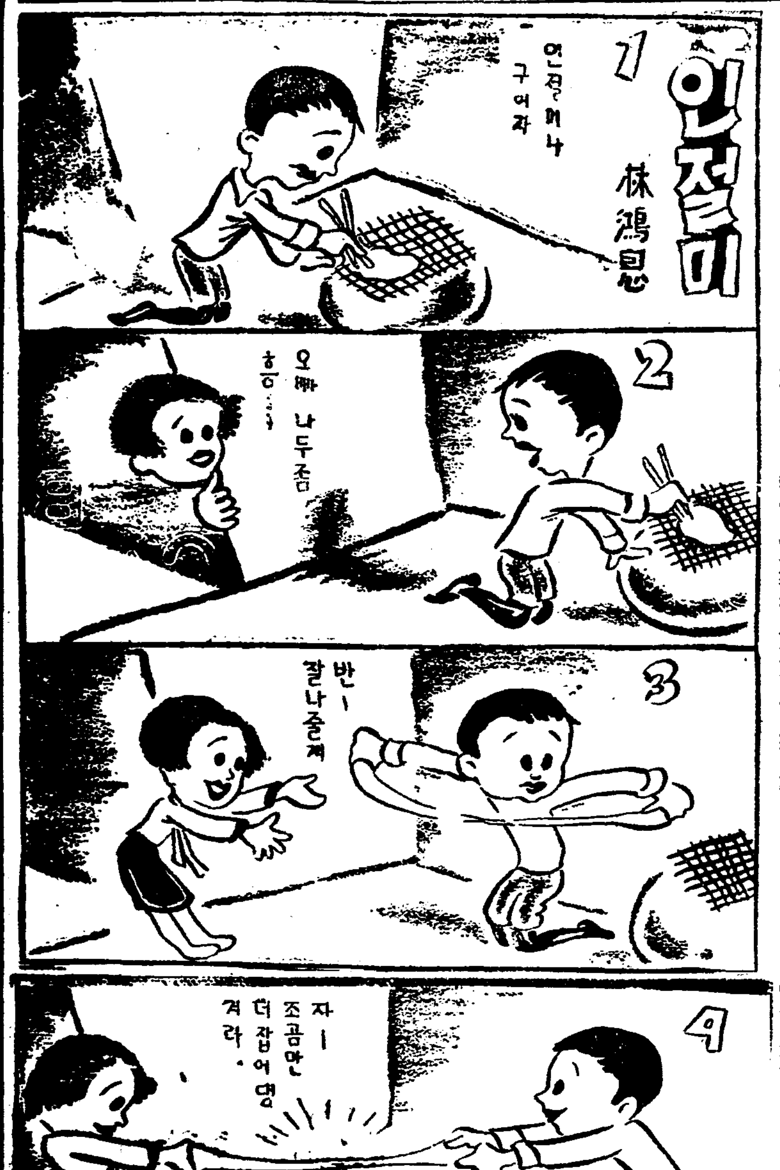
이러케하기를 대엿새 계속하니깐 그제서는 반통을 넘어도 뒤로 자빠지지를 안헛습니다.

열흘째되는날은 한통을채워가지고 가보리라하고 시험삼아 이러서보앗습니다.

그랫드니 뻐걱! 뻐걱 소리가 제법 크게나면서 이리비틀 저리비틀 내회틀렷습니다. 그래동리복순이머니께서 위태위태하다고 조심하라고까지 말슴하시게 되엿습니다.

이소문이 동리에 쫙 퍼지자 물장수가 이이야기를듯고 『그럼 내가 하로 물두지게식 기러다드리조』 하고 동정을하게 되어 경호가 물기르든지 열이튼날부터는 경호가 길지안케되얏습니다

그래 『귀여운물장수』라는별명이 그동리에 쭉퍼지고 나종에는 경호어머니까지 아시게되여서 밤낫 옷을 적시여 가지고 온다고 꾸중하시든것을 뉘우치시고 경호를칭찬하야 · 주시엿습니다 『끗』



의사스런사람의이야기 은항아리

옛날 인도(印度)에서 생긴이야깁니다. 인도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한번은 평청히큰 은항아리하나를 만드러 궁전에 두기로햇습니다. 만드러 노코보니 조키는조호나 여기다가대체 무얼 먼첨 넷는가가 문제엿습니다. 물항아리로쓰기는 앗갑기도 햇지만 그보다도 은항아리에다 물을 먼첨넷는다는것은 매우재수적은 노릇이라고 임금님은 굿게미덧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대신들을 불러노코 이런 명령을 내렷습니다——온나라 백성들은 제집에잇는 조고막식한 항아리에다 우유를 갓득갓득채워가지고 궁전 은항아리에갓다 부어너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생각햇습니다.

『올치 그처럼 크나큰항아리에다 다들 소젓을갓다부어널텐데 나하나쯤 물을갓다 너헛댓자빗갈이 변할리도업겟고 또 임금인들 밝혀낼 재간이 잇슬라구?』

이러케 생각한 그나라백성들은 저혼자만인줄만알고 모주리 우유대신에 물한동이식 갓다부어너헛습니다. 은항아리 노인데는 막을내려처서 바갓서는 보일여유가업스니까 절대로 안심이죠.

자ー 이러케되고보니 필경은 야단날수박게업습니다. 은항아리속에는 우유는 한방울도 업고 맹송 맹송한 물만이 갓득찻습니다. 이것을 안 임금님은 성이 하늘까지 당장에다허서 대신을불러안치고 물갓다부허너흔 놈들을모조리 죽여버리라고 호령이 추상갓텃습니다.

바로 이때엿습니다 백성가운데서 한사람이나서더니 임금압까지 나와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이러케 살외엿습니다.

『자비하신 대왕이시여 저어들일동은 폐하의 귀하옵기그지업스신 은항아리가 얼마나 큰가를 아러보기 위하야 먼저 물을 가지고 재여보앗습니다 떼통이로 소이다 인제 그분량을 아렷사오니 곳집에도라가서 넉넉히 채울수잇스리만치 우유를 준비해가지고 다시와서 채울생각이엿나이다』

이대답을 듯고서 임금님은 그말을 대단히 갸륵히녀겨 곳 ……들을 돌려보냇습니다.

우습단지

참이상한일

공일날 수동이는 아버지하고 이상한곳대기로 올라갓습니다.

수동 『아버지 왜 우리집 이층이 뵈지안허요?』

아버지 『그럼안뵈지 뭐냐』

수동 『참이상해 우리집 이층에서보면 이부야산이 뵈는데』

공일날때문에

선생ー『복남아 너는 왜날마다 무엇하러 학교에와서 공부하는거냐?』

복남ー『네 공일날 놀러구다닙니다』

해안뜨는이치

다섯살단 옥순이 아버지보고 하는말이

『아빠 난 어째서 비오는날해가 안나는지 안다누』

『참 용쿠나 그래 어째서안나와?』

『뭐 비마즈면 축축해지니까그러치』

기차는빠르다

말동이는 처음 기차를 타보앗습니다 차를타서 얼마안가기차는 굴속에드러갓다가 다시나왓습니다 말동이는 깜작놀라

『참 기차는 빠르기도해 금방해가지드니 또 금방 날이밝아서!』

감기든생선

생선집아페서 복동이엄마더러

『엄마 이생선은 감기가들려서 열이 나나봐!』

『어째서 그러냐?』

『뭐 그러컬래 대강이랑 몸통이에다가 어름을 처맷지』

개미란놈은 못난이

개미는 대단히 부지런한 버레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유명한학자 듀리앙·하슬레ー박사는 세상버레가운데 개미처럼 못나고 천치는 업다고하얏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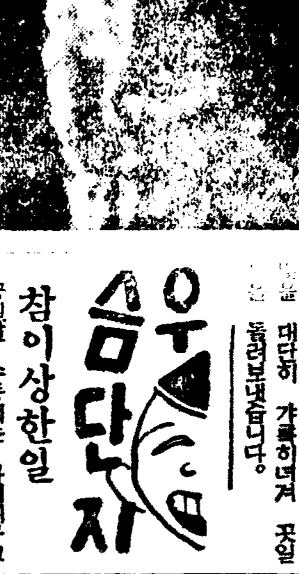
그박사의 설명을 드르면 다음과갓습니다.

『개아미는 개아미집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기동무들과 딴버레를 구별할줄모릅니다 그뿐아니라 자기가힘 것을 애써서 모아다둔 먹을것을 다른버레가 먹어버려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비가튼것이 자기집을 침의하고 자기귀중한 색기들을 잡아가도 개아미는 놀나지도 안코 슬퍼하지도 안습니다』

굉장굉장! "少年"四月號는 첫 돌마지 記念特別號!

少年四月號全國發賣

꼿밧보다 찬란한 "少年"四月號 어린이크는집에는 다 한책씩잇다!



★절 한 쌍(童謠) 朴泳鍾
★산부처님(新生) 鄭潤容
★金賞牌(童話) 洪蘭坡
★流星이야기(科學) 望月草
★一日一善(漫畫) 金龍煥
★재미나는말(趣味) 崔鉉培
★꿈이야기(科學) 沈亨弼

이상한꿈(特輯) 이상한꿈·무시무시한꿈·고마운꿈
□떨어진제명 金晋燮
□꼿이피려면 崔鳳則
□매마즌다리 鄭潤容
□미국서꾼꿈 朴泰俊
□내목을잘라 宋影
□솔개가되여 洪一吾
□나를쌘사람 李軒求

★畫報 億年前새들
★畫報 우리아기돌잔치
★畫報 원숭이大會

入選童謠集
□옹기장사……李顯秀
□새 벽……金潤榮
□밤 두 천……金英姬
□눈 눈 눈……朴文在
□꼬꾸라미……張鍾聖
□시냇물……申韓聖

☆봄마지☆
★봄 나 드 리 尹石重 朴泰俊 曲譜
★이달의꼿밧 李德鳳
★과일나무눈 金圭銀
★나비와꼿 鄭玄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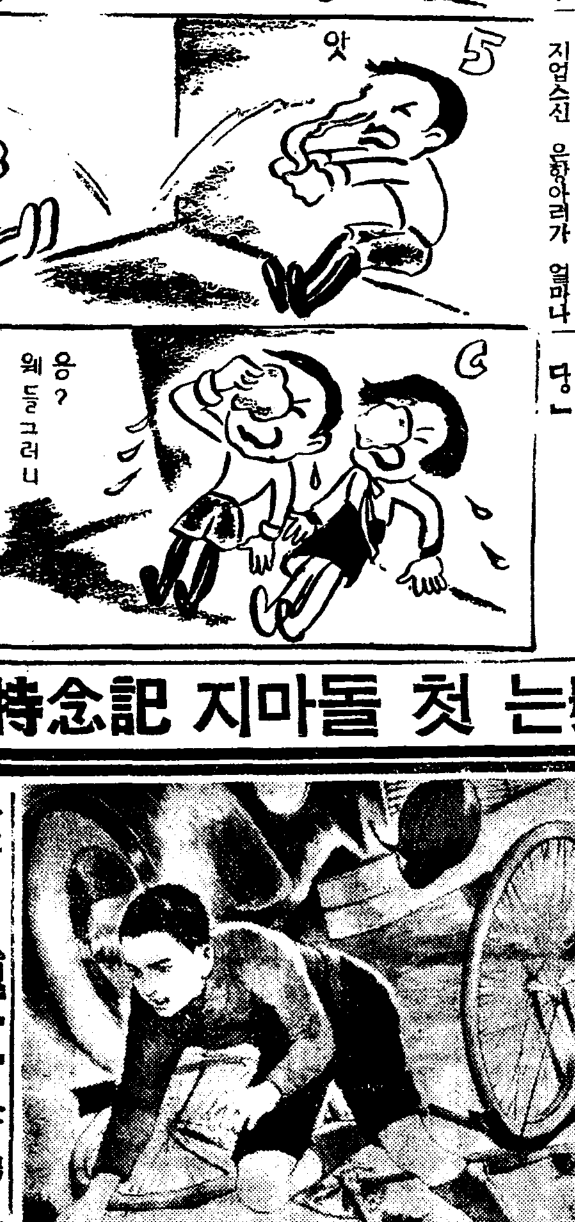
선머슴武勇傳 冒險小說 史又春

幼年童話
★쥐 젓…… 崔信國
★참새와파리…… 李壽益

□그림俗談集 □전차문답 □少年談話室 □깔깔笑年會 □少年娛樂室

少女小說 지붕속의王女 기다리고기다리던李雲谷先生의長篇小說

少年作品大募集! (자세한것은四月號冊에)



少年小說 自轉車 全鴻林 金龍煥 畵
探偵小說 自假面 金來成 白寧星 畵

단十錢(送料一錢) 一年치 一圓十錢 ·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 八七五)

鄕土文化를 찾아서 (三)

忠孝里訪問記

李殷相

錦繡山下에 忠孝里라는 一山村이잇습니다。나는 元山驛에서 [illegible]하엿다가 그래도 忠孝里를 찻고 시골마을구경겸이어서 [illegible] 山 [illegible]을 [illegible]하면서 [illegible] 낫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걸어보기는 처음이엇습니다。더구나 처음가는길에 [illegible]도 업시 혼자 山中[illegible]를 [illegible]만 밋고 나섯습니다。

갓가스로 元山川 냇물을 건너 차저가지고 나리노라니 正午에나서 [illegible] 十里를 네時間 예정이 多少 지체되어야 忠孝里로 들어섯습니다。

이곳이 金[illegible]의 [illegible] 닷고 자라신마을입니다。[illegible] 세 목숨이는 마을입니다。마을 안에 잇는 古木는 [illegible] 그의 [illegible]이엇습니다。

그안에 세운碑에는 「朝鮮國[illegible]左[illegible]公金[illegible]、[illegible]人[illegible]李氏忠孝之里」를 三行에 [illegible]새겻습니다。그리고 [illegible]에는 正祖의 綸音을 써부첫습니다。

이 忠孝里는 本是 石[illegible]村이라부르던것을 正祖께서 金將軍 [illegible]합니다。

지금 이 [illegible]는 그의 [illegible] 十餘戶가 [illegible] 살고잇는 金氏村입니다。[illegible]

金將軍의 一生을 구투나 [illegible] 무엇이라까마는 [illegible] 그 [illegible]를 여기와서는 참아두지못하겟습니다。

宣祖元年戊辰(西紀一五六八)十二月二十九日 이마을 [illegible]한집에 태어나서 [illegible]村公에게 글을 배우고 열두살에 [illegible]寺에서 글을 익히고 스물네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illegible] 무렵에 [illegible]의 門下에서 [illegible]하다가 스물다섯에 壬辰亂을 만나자 그의 伯氏[illegible]은 [illegible]과 함께 錦山에서 殉死하고 그다음해 스물여섯에 어머님마저 일코서는 그해十一月에 [illegible]에 [illegible] 大兵을 [illegible]합니다。

어려서부터 [illegible] 그마지막까지 [illegible] 大兵을 거느리고나섯지마 이제 [illegible] 그의손에서 [illegible]할수잇엇을 [illegible]것입니다。

그러나 [illegible]의 [illegible] 노치지아니하야 스물아홉에나던 [illegible]十一月에 [illegible] 나서 [illegible]잇습니다。[illegible] 한것을 생각하면 [illegible] 두워집을 어떠케 하오리까。

마침내 스물아홉을 [illegible]으로 八月二十一日에 獄에서 죽엇스니 뒤에남은일이 무엇이냐 가 제몸의 安危야 봇지부러 그의眼中에 잇지아냇스되 그의 一死로하여곰 이가티 [illegible]하게한 「運命」을 무엇이라 하오리까。

「臣今[illegible]、夫復何言、但願勿殺無辜之[illegible]」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이제죽거니와、[illegible]가 [illegible] 저 [illegible]」

이제다시 [illegible] 이제 내엇을 엇고다지 못하엿습니다。

[illegible]公도 이것을 [illegible] 하다가 [illegible] 마치것은 오히려 [illegible]이 [illegible]것이오 어가이라 [illegible]의 따무한 [illegible]이 [illegible]하게 오늘날이 山村에 나리비친는 [illegible] 무도 [illegible]하고 [illegible]지 아니하니까

寂寞한 山村에 [illegible] 소리만이 [illegible]합니다

主人이 가고업다
저달아 듯지마라
竹林 [illegible]에
이밤을 어이울고
어디서 계집는소리
저도잠을 일헛고나。

學藝

現代文學의 精神的基軸

◇主體의 再建과 現實의 意義—

(五) 林和

『뻘ー드렐』과 告發文學論者를 區別하는 第一큰 標識는 前者가 제惡魔의 正體를 明白히 알랏는대신 後者는 제 『유다』를 小市民이라고

摘 發한데 잇다할수잇다。그러나 兩者가 다가티 제惡魔와 『유다』를 제自身가운데서 찾을라하는데서는 죽엄도 區別되지 안는다。다시말하면 主體의 問題를 自己分裂과 心理相剋의 範圍안에서 把握하는데선 兩者를 區別할수가 업다。

이點에서 即主體問題를 自己分裂內的相剋의側面에 把握지안헛다고 告發文學論者는 우리들若干의論者를 非難하엿는데 이非難은 우리에게잇서 아직도 하나의 榮譽라고 생각는다。

웨그러냐하면 主體論의 心理的把握은 그克服의 方法을 制約함으로서다。

그들은 自己分裂을 오직하內部의 心理的自己鬪爭으로만 解決되리라고 잇는때문이다。

『뻘ー드렐』의 限界는 實로여기 잇다! 를 惡魔라고 부른데 엇는것이 아니라 自己分裂을 內心의 相剋으로 把握하고 그것을 內心의 範圍로서 解決하려는데 잇섯다。

自己를 엇더케하야 『뻘ー드렐』의 亞流임을 [illegible]할것인가? 自己內部에 잇는 『유다』『所謂小市民』을 낫낫치 摘發하야

公 衆의 面前에 告發함으로서인가? 그러면 自己告發文學의 藝術的價値는 亦是 文觀的情意의 表皮下에 숨은 모든 醜惡相을 公開하는데 잇슬것이다。

그러나 어쩌만으로서 『뻘ー드렐』을 이여낼수는 업는것이다。『뻘ー드렐』의 藝術的價値도 비록 悔恨의情熱을 가지고 하얏슬망정 惡魔에게 誘惑當한 醜惡한 深淵을 常識의衣裳을 벗고 開示한데 잇는것이다。

그럼으로 自己分裂이라는것을 心理의缺裂이라 생각할것이 아니라 실상은 分裂된世界、過渡的二重世界의 心理的反映으로 把握하지 안흘수가업다。다시말하면 自己自身가운데잇는 제敵은 現實가운데잇는 人間의敵의 一部分임을 理解하는게 決定的意義를 갖는다。

따라서 自己의 『유다』에 對한抗爭 自己內部의

小 市民에對한 차움은 실상 自己가운데 남아잇는 낡은世界와 낡은文化價値가 그破片에對한 抗爭이 된다。

即 우리의 自己相剋은 廣汎한世界에 잇서서 낡은 知性과 새知性、낡은 現實과 새現實의 相剋 그것이다。

意識이란 意識된 存在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으로 自己分裂의 克服은 決코 內部의 相剋 良心의苛責 告發의快感으로 達成되는 것이 아니라、分裂된 自己에 依한 自己分裂에의 抗爭 그것은 한개의 循環論理다。

自己分裂의 克服이 統一된 自己의完成이라면 어린 새世界의

知 性으로 自己內部를 제우는데잇다。

그럼으로 우리는 『뻐ー콘』과 가티 『아는것이 힘』이란 命題를 다시한번 强調해야한다。現實을 안다는것은 決코 모르는 自己를 告發함으로서가 아니라 現實속에서 行爲함으로 알게되는것이다。行爲는 또한 單純한 觀察이 아니다。

現實을 支配하느냐? 現實에게 支配되는냐? 를 決定하는 實踐、이實踐의過程을 通하야 사람은 現實에 適合한見解를 살리고 背馳되는 見解를 죽이여 또한 現實에 背馳되는 見解에 대신하야 아직 모르는現實의適合한 見解가 새로 形成되는것이다。

이것이 實踐을通한 現實과人間과의 相互關係다。그럼으로本來의 主體에잇서서 現實은 한상 그릇된意識은 敗北하며 올흔意識은 살아 次次로 現實을支配할 完全한意識—(適合하는 意識)만이 現實을

支 配하다—必然—自由— 을 形成해가는 試鍊의 場所다。

우리는 이行爲와 實踐과 그러고 우리에게잇선 試鍊의世界로서의 現實의價値를 再認識하고 高調해야한다。

文學에잇서서 이方法은 제主觀에 拘碍되지안코 現實을 探求하야 現實그것의 權力으로 作品을 構成하고 現實속에서當하는 作家主體의 試鍊의情熱로 作品의精神을 살는 그러한方法이다。

우리는 한사람의 主人公이어떠한 人物이지라도 作家가 미 [illegible] 그人物의 運命을 [illegible] 로 그人物에 [illegible] [illegible] 「明日의 [illegible]」을 [illegible] 反映한다。

「[illegible]」는 決코 一個人의 運命일뿐이 아니다。個人의 [illegible] [illegible] 우리가 우리와가튼人物을 [illegible]하야 그

人 物이 무엇을 [illegible]하고 그人物의 性格을 어떠케形成하며 全體로서 그의運命은 어떠케 決定되는가를 表示하는것이 바로 우리가 主體를 文學的으로 把握하는方法일뿐아니라 現實을 主體的으로 理解하는過程。

웨그러냐하면 그러한作品은 우리의生의 過程그것의 反映이며 主人公의 情熱은 우리自身의情熱의 再現이기때문이다。

그럼으로 나는性格의 立場에서現實을 展開하는것이 아니라 現實가운데서 性格의 發展을追跡한 「허ー크네스」에의 書簡의 巨大한 意義를 强調한것이다。

그러나 現實을 單純히 描寫의 對象으로만 理解하는 사람에게선 이言辭은 永遠한疑惑의書일것이다。

描寫하는것과 사는것을 分離하고 現實을 死한描寫의 對象으로만 제보이지못하는 俗見은時急히 打破되어야한다。

現實은 主體의 性質을 分析하는試金石이고 性格의 運命을 決定하는 自體다。

現實과의 相關에서主體가試鍊된다는것은 우리가 試鍊을通하야運命을 맨드러가는過程이다。

現實은 絶對로描寫의 對象以上이고 우리는 現實파의 葛藤에서 運命을 맨들기爲하야 文學하는것이다。그럼으로 우리는 이속에 일어나는 모든것을 生의標的으로 肯定한다。

붉은집 獨立美術展作品 石熙滿 作

—隨···筆—

毒草 (五)

崔仁俊

유다的인 小市民出身作家의最初의 문제를 自己에게 賦課한 金南天氏의 一聯의 論文은 充分히 注目할만한것이라고 잇는다。自己分裂의超克을 客體와主體와의 보다는 統一의世界로 이끄러올리려는 그의 不絕한 努力에는—반드시 그 同一한계바퀴에서지못하는 내가 그러면서 오히려 얼마간의 肉體的인 共感을 느끼는것은 먼저 그가 自身속의 醜惡한 유다的인것을 容赦업시 剔抉하는 自己告發의 노픈 文學精神을 [illegible] 定하지안코 좀더 自身의 主體的인 苦惱을 通하야 우리아페 提示하는 때문일것이다 그것은 意識 周邊附近에서 떠어나오는 거세인 呼吸이 우리에게 부닥처오는 「신세리티」의 魅力이여야한다。

그러나 적어도 問題를 主體性에서 提出하는限 여기에는作家一般의 主體가 公式的로보담은 좀더 作家個人의 主體性이 分裂을 相剋하려고 애쓰는 努力이 그의 主體的條件에서 出發하는것은 그러므로 正當하다고 보는것이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金南天個人의 肉體가 산채로 自身이 執刀하는 解剖臺우에 露出되는것이다。

한作家의 主體가 그作家의肉體와 不可分離의 關係를 가진다는 意味에서 作家個人의肉體가 現實的制約우에 노혀잇슴을 보게된다。예수의 弟子가 『유다』한사람이 아니엿든것처럼 金南天以外의 作家가 『버드로』도되고 『누가』도되고 『마레』도 되는것은 作家個個의肉體的相違가 現存하는것을 意味한다。金南天氏가 다른 열한弟子를 제처버리고 『유다』의 地位를 選擇하는것은—그러나그것은 먼저 金南天氏의 自由選擇에서 [illegible] 하나의 『유다』가 될수는업는노릇이다。누구나모두 나는 이이상더 金南天氏의 苦鬪의 精神과 同行하지못한다。

金南天氏에게 잇서서는 明日에의 希望을 約束하는 유다的인 모랄이 나에게는 다만 마이나쓰的인 自己虐待를 結果하는 때문이다。나는 나를 剔抉하고 나를 告白하기前에 먼저 나를 收拾하고 나를 찻드러주지안흐면 안된다。小市民出身의 作家가 할다만 그러한것처럼 現實의生活土臺우에 두다리를 딱 버티고서지못하는 동안에는 自己가自己하나를 붓들어보는것도 決코 容易한일이 아니다。自己가 自己하나를 빗드러나가기에 恒常 선불미치 어지럽고 自己가 自己에게는 外部의 힘이 손곳만큼 보다처음때에도 自己의 포ー즈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나가둥그러저 떠러지고 마는것이다。—그것은 좀더 生理的인 苦悶인지도 모른다。

한사람의 作家가 自己의 어느 포ー즈를 지켜나갈수잇는限 그는 自己의 思想感情을 觀念化하고 그러므로 統一되는 肯定的인 自己主張을 내세울수가 잇다고본다。그러나 얼새어떠우리의 肉體우에 賦課되는 外部的인 打擊에 우리의 肉體로써 抵抗할수잇슬만큼 줄때에는—여기에는 보담 生理的인 意味에 가령大脳組織의 어느部系統의 한가닥이 끈허진다든가或은 心臟 한部門에 缺損이생기든다든가 하는 決定的인 致命傷을 밧는다。그러한 瞬間에가지는 어느 精神狀態를 苦悶이라든가 剔抉이라든가 探求라든가 하는 그러한類의 文學的인 表現만을가지고 救援할수 잇슬것인가。남은놀리라도 내의 姿勢은 언제나 내의文學的인 포ー즈를 지켜나갈수업는데서 由來한다。만네리즘에 빠지지안는限 하나의 포ー즈가 얼마큼이나 眞實性을 把握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作家의 文學精神에 얼마큼 血肉化햇는냐 하는데 關着된다。그리고 그러한 意味에서 再현이란 眞實가 나에게 주는 한가지의 要素은 내의 肉體的條件에 服屬하는 어떤 一定한 文學하는 狀態—보담은 文學할수잇는 狀態를 不斷히 維持해갈려는 努力이다。

「아사·서든스」가 「저항·델렐」을 評한 말가운데서 어린말을 發見한다。

「여기에 장님이 될때까지 빗(光)을 追求하는 한사람이 잇다。그러나 우리들에게 重要한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보앗다는것이오 決코 그의 盲力이 微弱해서 暗黑의 世界으로 빠져은는 빛의 魔力에 정더여내지못햇슴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쯧—

레오·시로타氏 피아노獨奏會評 (上)

桂貞植

지난二十二日 府民舘에서열린 시로타氏의 피아노獨奏會는 無國한後 처음듯는演奏會였다 音樂會가 드믄우리音樂界에 적지안흔刺戟과激勵를준것은 반가운現象이다 프로그람의 順序를빼어서 最初의曲인 빼ー토ー벤의쏘나타第十八番이라고 씨운것이冊의順序로 本來는 作品三十一의第三番이라고하여야 誤解가업을것이다

이曲은 作家의 第二期作品으로 十九世紀 末期까지의 巨匠 한스·폰·뷰로의 愛奏曲이엿다 作曲形式에잇서서 스켈조와미뉴에트가 一曲中에包含되여 四樂章으로되여잇는것과 스켈조가三拍子가아니고 二拍子로되어잇는것이在目할바이다 昨夜시로타氏의演奏에잇서서 이쏘나타의取扱은 技術上으로는 아주洒脫하고 圓滑하고 纖細하여 듯는者를하여금 興奮우에서 가벼게滑走하는 快感을 주는바이엇다 그러만큼 聽衆에게 기픈印象을주지는못하엿다 그러고 部分的으로는『하이드ン』의音樂을 듯는가벼운늣기게되엿스며 全曲을通하여 빼ー토ー벤의音樂을 듯는氣分이적엇다 理由는 演奏의 첫째曲目인만큼演奏者나聽衆의 準備不足도잇섯다 다시말하면 演奏者의 筋肉的 心理的 條件이 音樂自體內로 들어가지못한點과 聽衆과의 內的融合이 아직 不充分한데잇다고본다 解釋에잇서서 「시로타」氏의 特異性인지모르나 『피어니씨모』에 不充分한點이 多少잇고 部分的으로는 『리탈단도』하지아니할수節에 한일이잇다 元來 빼ー토ー벤의 作品은 作者自身이 表情記號를 餘地업시 發表하엿다는것이 音樂學의 Musikwissenschaft 證明하는바이다 그러므로 音樂한 테크닉을 가지고도 不完全한 演奏가되는 理由가 여 [illegible]지엇다。

第二曲目인 슈만의 [illegible] [illegible]作品第十三은 [illegible] 目을 [illegible]하야 [illegible]上[illegible] [illegible] 으로부터 [illegible]을 [illegible] 바라 아쳐은 [illegible] [illegible]어요 [illegible] [illegible]인데 슈만은 [illegible] [illegible]人 [illegible]에게 어떻을 [illegible]하엿다 그럼으로 [illegible] [illegible]이 엇든 [illegible]되게 나타나는것도 [illegible]人에게 [illegible]기[illegible]한것이다 시로타氏의 어[illegible] 의[illegible]는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보다 [illegible]하엿다

中篇小說 女人命令 【78】

李善熙 作　崔根培 畫

외투걸 (八)

그이튼날 여중내도 웰 낫모를 사나히 하나가 들어왓다。개를이 전정양복 엽은 사람이 눈에 서툴다고 사나히의 아래두리에 착착 감기며 지저귄다 그는 한손으로 개를 물면서 눈은 엷만 바라보고 동내 가운데로난 길을 급하게 걸어들어왓다。

이사람도 숙채가 면칭 에섬으로 오든날 마을사람들의거뉘집하면 못지안코 바로 버드나무집으로 가드시 곳장 그집으로 드러가려한다。

유원이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잠간 주춤햇다。엣날 숙채가이 버드나무 아래에 숨어서 들어그뒤를 따라 마당 가운데 어른거렷다。

유원이가 마당에 드러서자고 그의눈에 먼뎌 보이는것이잇다 오늘도 토방마루에서 혼자 놀고잇는 숙채의 어린것—유원이는 그적은 얼골에서 문득엿하지안흔 숙채의 얼골을 보앗다。

「응?」

순간 유원이는 약간 고개를 외로꼬고 입가에 어색한 웃음을 띄우는것갓드니 도라서 그어린아이를 유심히 바라다본다。그의얼굴엔 전전더 그어색한뜻한우슴이 지러와서 무척 갑게 무량햇다。

유원이가 숙채의 아들을 보고 놀라는것이 무리가 아니다

오지안흔지……。

십년전에 유원이가 이집에 와잇섯고 그들이 마즈막 서울서 헤여질때 어둥내의 물망은 소금물처럼 점점하다는 이야기를 햇고 이제도 숙채가 이섬에와서 여섯달동안이나 잇섯고——그러나 이러한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한대도 그것이그리 장한것은 못된다。유원이는 여전히 무거운숨을 내쉬며 전보다 안히 변해진것 가든나자세보면 징중이며 벼여며 올라려며 걸어며가 그냥그대로 남아잇는 엣마을을 물끄러어 바라보고잇섯다。

이러할때 마츰 냉수로난히 우물에가는 뤼댁이 물동이를 이고오다가 유원이가 서잇는것을 보고 그어며 가서 마조섯다。

「우려진에 오시는 손님이시요?」

「네ー저」

유원이는 무한하게 대답을해노코 물동이를 인 여인네를바러봣다。

「그럼 어서 들어오시요」

뤼댁은 어제 서울에기어마이가 용에다 편지썼하고 누구를 기다리는 눈치를 채엿든터라 버드나무미테 서잇는 양복쟁이는 물림업는 자기집 손님이라고단정하고 연해 한손으로 물동이쪽지를 잡고 뒤를도라다보며유원이더러 드러오라고하는것이다

유원이도 여전히 이러이러한사람이 잇는냐고 무를 필요도업시 지금 그집에면 숙채가잇슬것을 눈으로 확실히 보면서 조흔 뒤께와 안내자를 만낫다고

그들이 서로 헤여질때는 숙채가 아직 소녀티를 벗지못한처녀—유원이가 아는숙채 유원이가 생각하는 숙채는 그러한모습이엿드니 이제 보지못한 숙채의 『어미꼴』과 및 그어린것을 형상(形象)한다는수가 무슨재주로 잇슬것이랴。

뤼댁이 부억에 들어가 물동이를 내려노코 사랑방에 나가 숙채보고 무에라고 수군거리는사이 유원이는 자기도 모르게 한거름 예기 안으로 다어섯다 그리고 무에라고 애기에게말을 부처보려햇스나 말이 용이히못구내을 흘어막고 나오질안허서 그냥 두손을 벌려서오라는뜻을 보엿다。

아이는 『엥』하고 울면서 [illegible] 물러서는것이 아니다 그저 [illegible] 을 물끄럼이 처다보면서 [illegible]。그러나 남의 이야기만으론 불쑥 추한법이다。이 부족한 이야기가 이미 유원의게 일우워진속개를 와전히 허무러트리기는커어 불가능한 업이엿든것이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갓다。유원이는 그소리를 귀에 담으며 잠시 바다쪽으로머리를 돌리엿다。

『들어오시요』

뤼댁이 문을 열고 손님을청해드렷다 유원이는 뤼댁이 한손으로 문을 열어제치고잇는그 겨드랑이 미트로 숙채의 파리한 얼골을 ー 뚝 보앗다。

消化促進

榮養增進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지아스타ー제

高峰讓吉博士發見

タカヂアスターゼ는
澱粉消化力의無比함을자랑할뿐만아니라 蛋白質·脂肪消化酵素等實로十餘種에이르는消化酵素를含有하고 그消化作用은 이러한 多種消化酵素의 多角的作用에基因하는것입니다
그리고效力은恒常一定 永久不變한特長이잇고 酸性을呈하는胃液 아루카리性을가진 膓液에 效力이 減退되지안코 優秀한臨床效果를 나타낸다는것이 알려저잇습니다
(末、錠各種)

全世界의藥店에잇슴

說明書進呈

日本製造元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SANKYO 三共

咳에
ブロチン
부로친

三大特長
應用安全·效果佳良·服用容易

鎭咳袪痰劑로서
廿餘年第一位의聲價잇슴

說明書進呈

末 50瓦 ¥1.00
錠 30錠 ¥.40
液 100瓦 ¥.85
ボンボン50顆¥.80
外에大量入잇슴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應用極히廣汎하고

效果的確함이알려진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妊娠·産褥
妊娠 産褥 授乳時에잇서서 體內비타민B의 消費量은 平常時의三—五倍라고합니다 이것을 適切하게補給하는데에 オリザニン을 推奬합니다

疲勞·衰弱
オリザニン이 疲勞를防止하고 또그恢復을 促進하는것은 스포ー쓰界에서도立證되여잇습니다

熱性疾患
膓結核 肋膜炎等에對하야 オリザニン을適用하면 病原에對한 抵抗力이 增加됨을 알수잇습니다

食慾不振
비타민B의 不足·缺乏은 食慾不振·便秘 胃膓病等을 招來한다고 합니다 オリザニン이 이러한경우에 推奬되는所以입니다

成長促進
兒童에게 オリザニン을 給與하면體重을 增加하고 成長을 促進하는것이 實驗立證되여잇습니다

脚氣一般
脚氣各症狀에對한 オリザニン의效果는 確實함이알려저잇습니다

オリザニン은 비타민B의 世界的始祖로서 明治四十三年 我鈴木梅太郞博士에 依하야 發明된것입니다
所謂비타민B劑는 原料製法을따라 效果의 一定不變함을期하기어려운 性質이잇습니다
オリザニン은 製品마다 嚴重한 生物學的檢定試驗을行하야 效力의 一定을 期하고 또 獨特한方法으로保存에因한 效力의 變化를 防止한 責任製劑입니다

說明書進呈
末、錠、液、エキス
及注射液各種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二十六日(土曜)

◇午後六時(子供)少年小說「떡송」 作 피아노 韓泰泉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思想과生活」 中專 金斗憲
◇同七時四〇分 講演「紙幣와金貨와의價値關係」(二) 徐椿
◇同八時 (大) 피아노獨奏와獨唱 一、피아노獨奏「사쓰마組曲」 엘쿤스트草笛作曲 가、天保山 나、櫻島의日出 다、薩摩武士의出陣 라、霧島山展望 마、東鄕元帥靈年寬 二、獨唱 가、괴리 나、새벽雪山 다、日本新年祝節 라、祖露草 獨奏 엘쿤 스트·봇 젤 獨唱 헨라·슈-베르트 伴奏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指揮 二宮秀
◇同八時三〇分 新俗謠 一、開城八景 二、진도라지 三、新羅逢歌 四、月夜遊船 五、군밤打鈴 六、靑春江水 閔亨植 李正心 林錦順

二十七日(日曜)

◇同九時 라듸오小品「꼿파로-만스」 朗讀 金鮮英
◇午前九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平壤)-娛樂-商樂-
◇新人의午後◇「獨唱」
◇午後〇時五分 一、가、니-나의 죽엄…페르골레지作曲 나、蘆笛…슈-망作曲 다、미네투카諾반…舜-란스作曲 라、행자나무…山田耕作作曲 마、이길…同 바、聖母마리아…大中寅二作曲 사、소렌토로도라오라…伊太利民謠 二、슈-베르트作品六曲 가、海邊에서 나、焦燥 다、나의집 라、幽靈 마、나의安息 바、死別 三、피아노伴奏 가、歌劇「미논」中에서 崔星嶺 崔率嶺 어어아느냐내故鄕南國을…토-마스作曲 나、솔베이지의노래…그릭그作曲 다、마리아마리…카푸아作曲 라、思友…헤이스作曲 마、歌劇「보헤미안」少女中에서…발프作曲 큰근심으로 衰한마음 朴光旭
◇피아노伴奏
◇同六時 童謠 一、獨唱 故鄕의봄 二、獨唱 동리의원二、靑唱 기차노리 四、獨唱 누나얼굴 五、靑唱 자전거 六、獨唱 애기별 七、靑唱 꽃나드리 八、同 봄나무 두루미會兒童 獨唱 劉順 伴奏 D K 洪秋 指揮 洪蘭坡 編曲과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三五分 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重仙會(絃樂) 二、昇平萬歲之曲(管樂倂奏) 三、太平春之曲(合樂) 李王職雅樂部員
◇同八時 古談「命時官婢」 指揮 雅樂師長 金寶和 金羅雲
◇同八時三〇分 故丁貞烈作品(레코-드) 一、短歌 江上風月 二、唱劇調 春香歌最致 春香離別歌 妓生點考 磚石되룰너머서 御史와春香母
◇同九時 西道歌謠 一、小春香歌 二、寧邊歌 三、孔明歌 四、도라지打鈴 黃順子 墨桂月

白二目勝으로 戰局은 終幕

三玄子

前回에서 말한바와가티 對局雙方은 正히均勢의 立場에서 이一幕으로 十手以內에 終局케되니 이제 다시緊張이 새로워진것은 말할必要도 업거니와 黑一九三 申의七은 最後에 남아잇는 二目로서 勿論 조흔자리이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先手가아니니 午의六잇는 庚의一의 先手一目을 먼저한 다음 두는것이올리라고 생각하며 白一九四 申의六과 黑一九五 申의八은 兩者가 서로 缺할수업는 酬應이다 그리고 白一九六巳의九 黑一九七 巳의一〇은 通例의交換이며 白一九八이 左邊上隅의 白目에 一侵中치아니하고 寅의四에둔것은 알수업는 일이다 또黑一九九 庚의一 白二〇〇 庚의五의 酬應實大냄뒤에 黑도 左邊上隅의 白目中의 午의三에 두어 辰의一以下의 白四點을 끈지아니한것도 探譜의 잘못이 아닌가한다 그뿐만아니라 黑二〇一 卯의四 白二〇二 午의六으로 終局하야 黑七十六目 白七十八目의 黑二目負로 探譜되엿는데 그와가티 盤面目數를 計算하야도 白八十目 黑七十八目이니 各二目가 잘못計算되엿고 또左邊上隅의白目로 말할것가트면 朝鮮式의 目數計算이아닌以上 午의三의 끈이는곳을 連하지아니할수업고 또白어 그를連하면 黑이 午의곳에 두게되니 白은未의五로連하야 이白目는 二目가 줄어진다 그리하야 白黑各七十八目의 碁가될것인데 白二目勝으로 計算한것은 探譜의過誤로 말미암은것이 分明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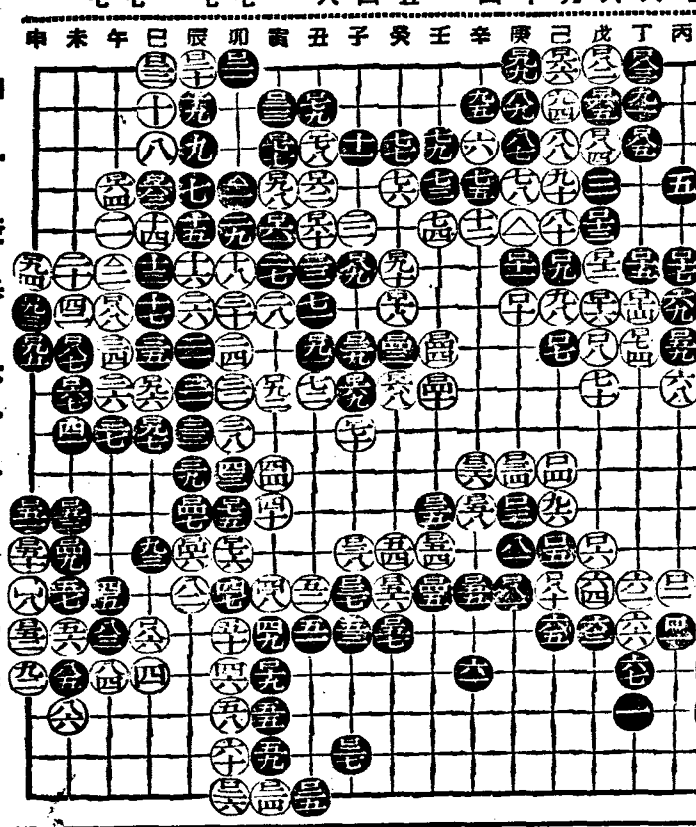
今回의陣法은 自初至終 戰馬가생기지 아니한것이 하나의 特色이다 그리고 黑이 中盤以來 優勢를가지고 그를保守함에만汲汲하다가 여러번失手한까닭도잇지마는 白의作戶하는 手法은 實로入室의境에드러간것이다 그리하야 初盤및 中盤의尖勢를 一般作戶와 紙碁作工으로 挽回하야 黼碁로 終局한것은 一種의快記錄이아니라 할수업다 그러나 白이 作戶에만 注力하야 한번도 戰馬를 맨들지아니한것은 偏局의嫌이 업지아니하고 그것은 陣勢의趨移로 말미암아 그와가티된것이라 할수도잇지마는 그러나 그機會는 얼마든지잇섯다 그리고 白이 旣成된黑地를破壞함보다 白地의新築에 注力한것은 中盤前後의 局勢로보아서는 甚히不可한것가티 보엿는데 그러나 黑이 곳까지 그를 살피지못하야 한갓白의 操縱하는대로 끌려간것은 탄할일이 아니라 할수업섯다 그러하야 觀戰者로 하야금마음이 조리게할만한 場面과 感嘆케할만한 陣形이 한번도생기지안코 平平凡凡한酬應이 二百二手(그實二百四手)로 終局하엿다 大槪一面을 終與함에 二百五十手內外를 要하는데二百二手의終局은 드믄일이다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13)

白 丁奎春
黑 金秉浩

●一九三 申의七
○一九四 申의六
●一九五 申의八
○一九六 巳의九
●一九七 巳의十
○一九八 寅의四
●一九九 庚의一
○二〇〇 庚의五
●二〇一 卯의四
○二〇二 午의六
……死點……
● 卯의七
● 戌의七
……粘……
○ 卯의七
○ 戌의七



白丁奎春 七十八目
黑金秉浩 七十六目
白二目勝

부인병良藥

속으로잠복된 부인병에 제일조흔치료법

병원에가도 낫지안코 다른약으로도낫지안는 부인병에는 명지모를 복용하고 완전히곳치시기바랍니다.

병원약이나 수술이라는것은비용도만히걸리고 위험할뿐만안이라 가정부인으로서는 병원에가기도 어렵지만 병원에간다고어떠한병이던지 전부낫는것이아닙니다 또한 양약방이나 한약방에가면 근래에는 여러가지약이만히잇지만 하나도신용할만한것은 업슬것이니다 그러므로여러분가운데 그동안여러가지약을써보아도 병은낫지안코 시는분은 확한번명지모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지모는조선 만주 중국에서 작고작고 주문이오고 서양각국에서도 주문이 만히 오는것은모다 신용이잇고 약효가제일조 타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명지모를써보지안흔분은 주저말고 지금곳한번 복용하시기바랍니다

약을먹은후 三분이면약효를 알수잇습니다

명지모는 복용한지삼분만지나면 얼굴에화색이돌고 기분이조와질뿐만아니라 이약을복용한지하로 이틀지나고 일주일 이주일이지나는동안에는 확실이약효가나타나서 어떠한부인병이던지곳칠수가잇고 또한 전부터한약을만히 쓰든 우리조선부인의 체질에는 제일적당한약이라고 밋습니다 부인병은 고통이심하지안어도 병은벌서만성고질이되여잇는수가만흐니 이약을주문하야 복용하고자하는분은 우선일주일 동안이면효과를 알수잇지만 한달가량은복용해 보시는것이조흔줄을압니다 만일한달분을 주문하엿다가 약효가 조와서 일주일동안에 병이근치되엿다 하드래도 남은 약을다른 사람에게주거나 버리거나 하지말고 업다고 꾸준히복용하시면 재발할념려도업고 튼튼한몸이되어 조흔효과를 어더서 근치하고 귀여운애기를나실수잇스니 여러분께서명지모를 주문하야 복용하고자하는분은 여러분의 병세를속임업시자세히 적어서보내시고 약은 본포에서 여러분의병세를자세히 보고 병세에제일적당한약을보내 드립니다

주문법

명지모를 주문하야복용하고자하는분은 병세를속임업시 자세히 적어서보내시면 병세에꼭맛는약을 대금인환으로 보내드리오며 또한 약을선금으로주문하시는분에게는 송료를전부 부담해드리오니 여러분께서편리한 방법으로 약을주문하야쓰시기바랍니다

藥價
六日分 一圓
一三日分 二圓
二〇日分 三圓
三五日分 五圓
七〇日分 十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無代進呈 婦人病自宅治療書

命之母本舖에서는 三千里江山어느가정에도 꼭 必要한 婦人病自宅治療書를 조선말로알기쉽게자세히써서 朝鮮婦人에게 衛生智識을普及시키기爲하야 一般家庭에한권식거저드리는것이니 藥을註文하지안는 婦人어라도請求하시기바랍니다

대하증을곳치고 임신까지하엿다고

날마다모여드는감사장!

京城、朱鶴子氏는 신문광고지광고에 하도여러번 속어서 『命之母』가티신용잇는약도 의심스러워서 쓰지안타가 친한동무의 소개로 한제를 주문하야 복용한것이 의외에 약효가 조와서 아래배압흔것도낫고 대하증도 차차로줄어서 매단히 기뻐하든중에 임신까지하야 남편과 시부모도 조와한다고。

洪川、金玉姬氏는 아직까지 결혼도하지안흔 처녀의몸으로 매월과가티 두통이심하고 현기증이나는때도잇고 아래배가아퍼서 곤난하든중에 월경도 불순하야지고 대하증이만히흘러서 병원에도가 보앗고 다른약도써보앗지만 조곰도낫지안흐므로 남몰래 눈물로 세월을보내며 걱정하다가 이약을쓰고 완전히 건강회복하야 얼골에화색이 돌고 살결이고와지므로 속마음으로 기뻐한다고。

命之母

朝鮮日報讀者 切取線
此券一枚에一個限
特別大割引券
此券을切取하야封筒에넣어申込하면곳代金引換으로發送함
東洋時計合資會社 ㊞
時計 (番) 一個 註文品
切取線

左의堅牢正確無比한時計流質處分春期臨時奉仕로서向後十日間內로申込하는분에限하야左의혈가로投賣함 편지中에上揭한大割引券을切取하야封入申込하면곳代金引換으로發送함 十日間內라도賣切되는때는容赦해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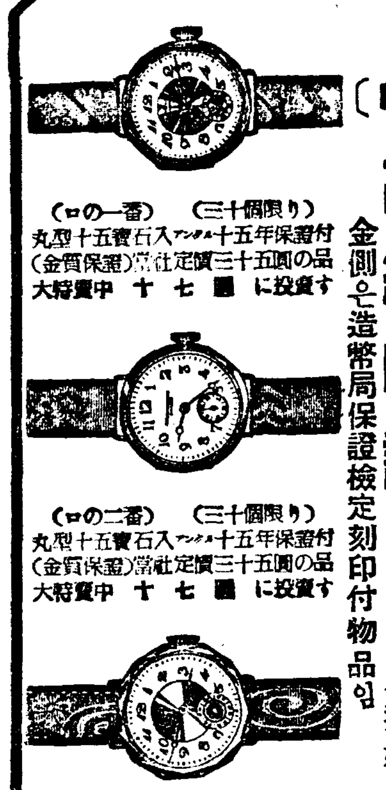
〔イ〕實用時計 クローム側 スイス製機械

(イの一番)(五十個限り) 丸實用型七石入アンクル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七圓の品を 大特賣中 三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二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支七石入アンクル十年保證付 當社定價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四圓九十錢 に投賣す
(イの三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入アンクル十年間保證書付 當社定價十四圓の品を 大特賣中 六圓五十錢 に投賣す
(イの四番)(三十個限り) 新樽型九型半十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六圓八十錢 に投賣す
(イの五番)(三十個限り) 新變型九型半十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十七圓の品を 大特賣中 七圓七十錢 に投賣す
(イの六)五型婦人用(廿個限り) 白寶石裝飾付側十五石十五年保證 當社定價三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九十錢 に投賣す
(イの七番)(三十個限り) 切子變型八型十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二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八圓九十錢 に投賣す
(イの八番)(二十個限り) 高級タバンシーマ十型七石入アンクル 四十年保證當社定價三十二圓の品 大特賣中 十四圓九十錢に投賣す
(イの九番)(二十個限り) 最優秀モリス 九型十五石アンクル 四十年保證當社定價三十五圓を 大特賣中 十四圓九十錢に投賣す
(イの十番)(三十個限り) 最優秀機械九型半十石アンクル廿五年保證書付 當社定價二十圓の品 大特賣中 八圓七十錢 に投賣す
(イの十一番)(三十個限り) 夜光時計 十型十石アンクル廿五年保證書付當社定價二十二圓の品 大特賣中 九圓五十錢 に投賣す
(イの十二番)(三十個限り) 夜光時計丸變型九型半十石入アンクル三十年保證當社定價二十三圓を 大特賣中 十圓五十錢に投賣す

男女兼用高級品三種
(イの十三番)(二十個限) 男女兼用九型高級品 變型十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二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十 圓 に投賣す
(イの十四番)(二十個限) 男女兼用八型高級品 丸型十五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書付 當社定價二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二圓 に投賣す
(イの十五番)(二十個限) 男女兼用八型高級品 切子變型十五石アンクル二十年保證付 當社定價二十八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三圓 に投賣す

〔ロ〕高級時計 金側 スイス製機械 八型婦人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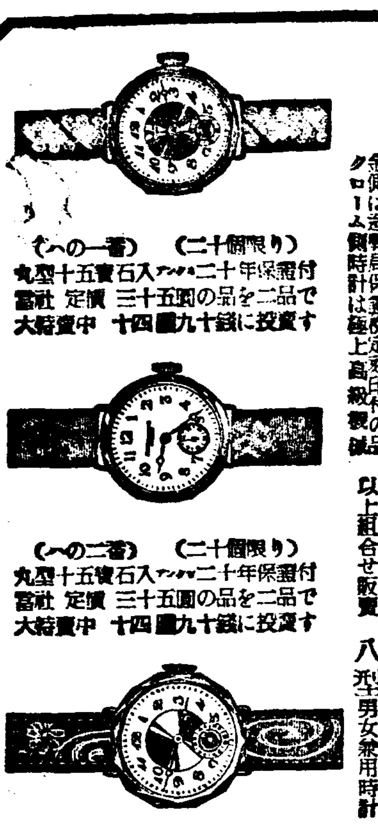
金側은造幣局保證檢定刻印付物品임



(ロの一番)(三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金質保證)當社定價三十五圓の品 大特賣中 十七圓 に投賣す
(ロの二番)(三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金質保證)當社定價三十五圓の品 大特賣中 十七圓 に投賣す
(ロの三番)(三十個限り) 切子變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 (金質保證)當社定價三十九圓の品 大特賣中 十九圓 に投賣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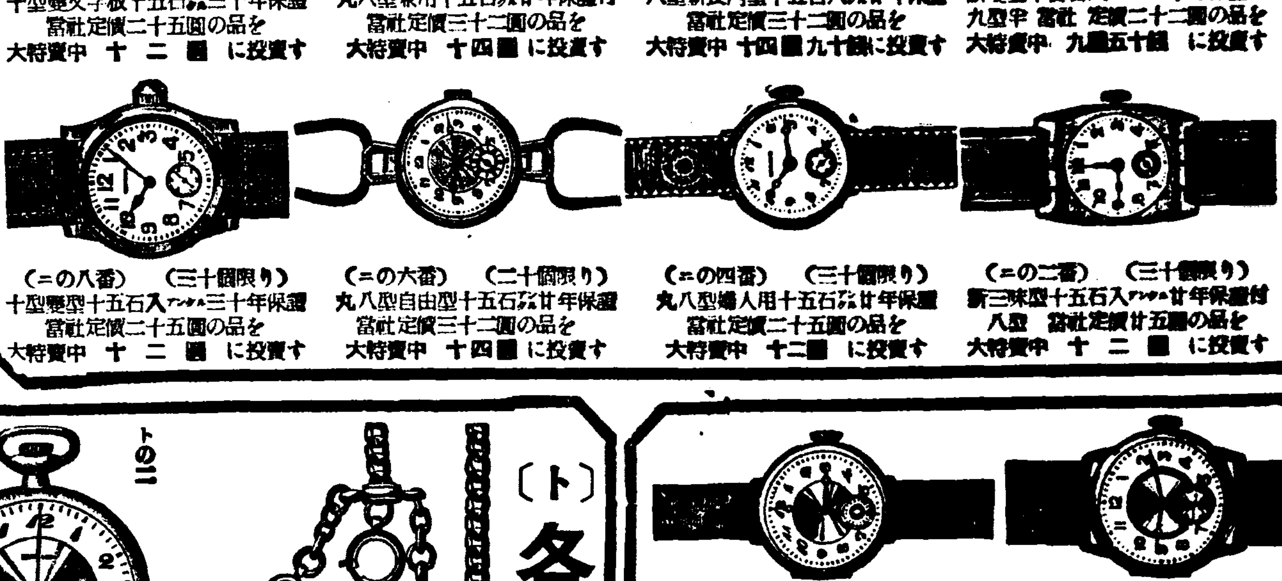
〔ハ〕高級時計 スイス製機械 クローム側 金側 兼用

(クローム側時計に金側を豫備としてつけてありますから一個の時計でクローム側と金側とに兼用出來る特別廉賣品です)
金側は造幣局保證檢定刻印付の品 クローム側時計は極上高級製品 以上組合せ販賣 八型男女兼用時計



(ハの一番)(二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付 當社 定價 三十五圓の品を二品で 大特賣中 十四圓九十錢に投賣す
(ハの二番)(二十個限り) 丸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付 當社 定價 三十五圓の品を二品で 大特賣中 十四圓九十錢に投賣す
(ハの三番)(二十個限り) 切子變型十五寶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 當社 定價 三十九圓の品を二品で 大特賣中 十六圓九十錢に投賣す

〔ニ〕高級時計 科學プラチナ側 スイス製機械



(ニの一番)(三十個限り) 新變型十寶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付 九型半 當社 定價二十二圓の品を 大特賣中 九圓五十錢 に投賣す
(ニの二番)(三十個限り) 新三味型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付 八型 當社定價廿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 二 圓 に投賣す
(ニの三番)(三十個限り) 八型新長角型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 當社定價三十二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九十錢に投賣す
(ニの四番)(三十個限り) 丸八型婦人用十五石アンクル廿年保證 當社定價二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二圓 に投賣す
(ニの五番)(三十個限り) 丸八型兼用十五石アンクル廿年保證付 當社定價三十二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 に投賣す
(ニの六番)(二十個限り) 丸八型自由型十五石アンクル廿年保證 當社定價三十二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 に投賣す
(ニの七番)(三十個限り) 十型變文字板十五石アンクル三十年保證 當社定價二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 二 圓 に投賣す
(ニの八番)(三十個限り) 十型變型十五石入アンクル三十年保證 當社定價二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 二 圓 に投賣す

〔ホ〕寶石入 金指輪

金質은當社保證刻印付의物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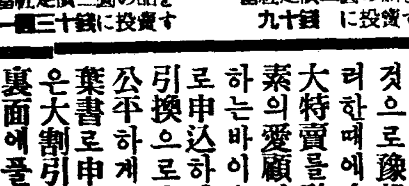
(ホの一)卅個限 赤ルビー入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九十五錢に投賣す
(ホの二)卅個限 赤ルビー入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九十五錢投賣
(ホの三)廿個限 青サファヤ入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九十五錢に投賣
(ホの四)廿個限 淡紫色ハートマス入 金指輪當社定價 六圓の品を 二圓九十五錢に投賣
(ホの五)廿個限 眞珠入 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九十五錢投賣
(ホの六)廿個限 黑寶石(ヘマタイト) 金指輪 當社定價 六圓の品を 二圓九十五錢投賣
(ホの七)廿個限 黑寶石入金指輪 當社定價六圓の品 二圓九十五錢に投賣
(ホの八)十個限 ダイヤ入 金指輪 當社定價三十圓の品 十八圓に投賣す

〔ホ〕ダイヤ入 プラチナ指輪

(ホの九)十個限 ダイヤ入プラチナ指輪 當社定價 五十五圓の品を 二十九圓に投賣す
(ホの十)十個限 ダイヤ入プラチナ指輪 當社定價 七十圓の品を 三十九圓に投賣す

指의寸法
실이나 또는 노끈으로 指의周圍를 재여서 그실이나 노끈을 편지에 付하야 申込하시압

〔メ〕目覺時計



(メの一番) 當社定價二圓の品を 九十錢 に投賣す
(メの二番) 當社定價三圓の品を 一圓三十錢に投賣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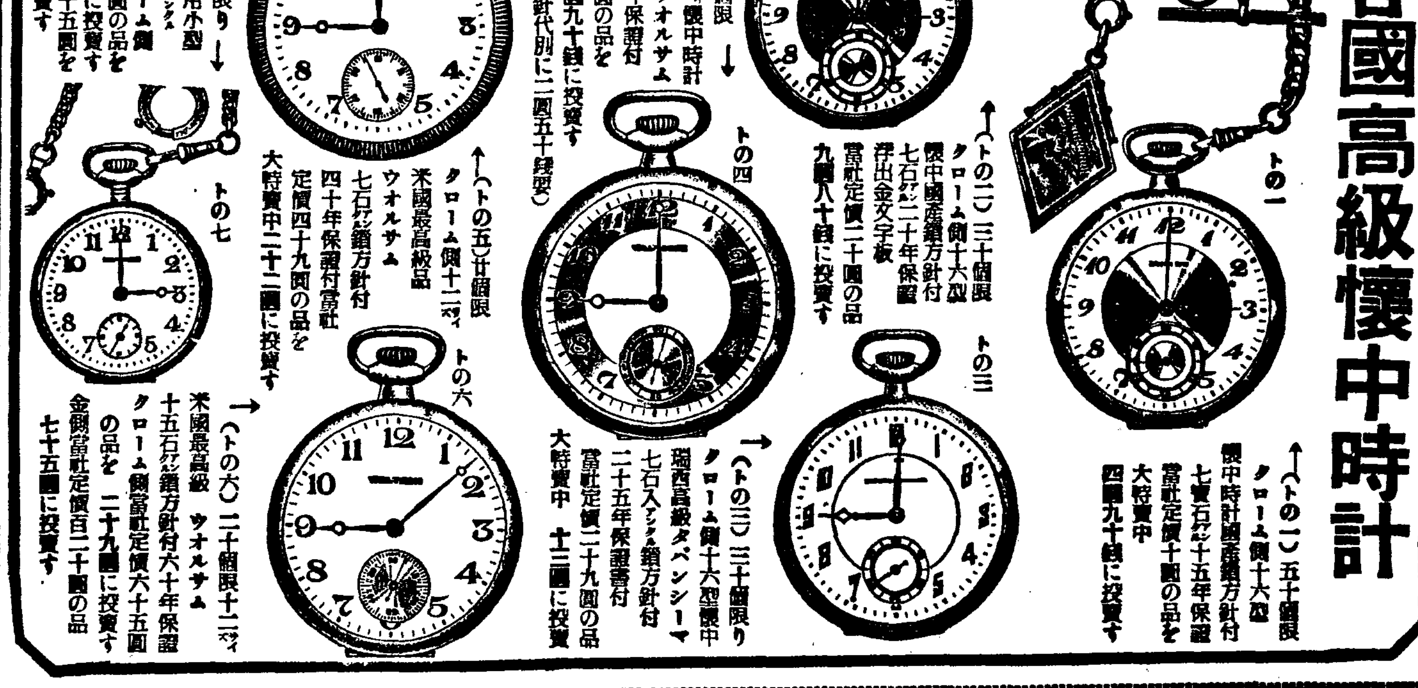
一般으로物價騰貴하는此時特히時計類는 現在자꾸자꾸暴騰될것으로豫想됩니다 이러한때에右의數量만 大特賣를敢行하야平素의愛顧에報答코저 하는바이올시다 편지로申込하시면곳代金引換으로申込順대로 公平하게發送합니다 葉書로申込하시는분은大割引券을葉書의 裏面에풀로부처보내십시요

〔ヘ〕不損ガラス入優秀時計 クローム側

此時計는 깨지안는 特殊硝子入인故로 普通硝子와는 달나서 깨지지아니하는 튼튼한時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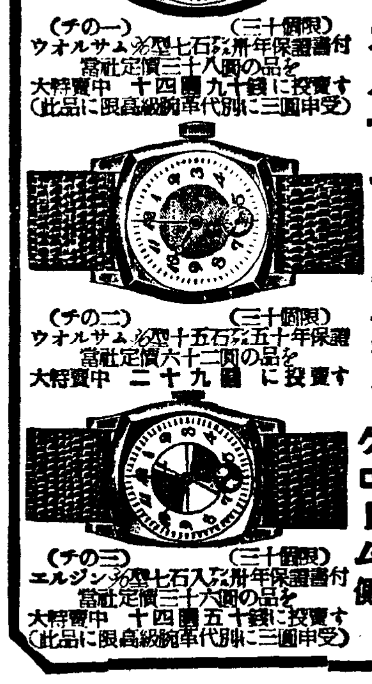
(への一番)(五十個限り) 丸十型七石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國產不損硝子入當社定價十八圓を 大特賣中 七圓五十錢 に投賣す
(への二番)(五十個限り) 新變型十型七石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國產不損硝子入當社定價十八圓を 大特賣中 七圓八十錢 に投賣す
(への三番)(五十個限り) 丸九型七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國產不損硝子入當社定價二十圓を 大特賣中 八圓五十錢 に投賣す
(への四番)(三十個限り) 丸八型七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書付 國產不損硝子入當社定價二十二圓を大特賣中 九圓七十錢に投賣す
(への五番)(三十個限) 八型丸變型十石アンクル二十年保證書付 國產不損硝子入當社定價二十四圓 大特賣中 十 一 圓 に投賣す
(への六番)(三十個限り) 八型變舟型十五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 國產不損硝子入當社定價三十圓を 大特賣中 十 三 圓 に投賣す

〔ト〕各國高級懷中時計



(トの一)五十個限 クローム側十六型 懷中時計國產鎖方針付 七寶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 當社定價十圓の品を 大特賣中 四圓九十錢に投賣す
(トの二)三十個限 クローム側十六型 懷中國產鎖方針付 七石入アンクル二十年保證 浮出金文字板 當社定價二十圓の品 九圓八十錢に投賣す
(トの三)三十個限り クローム側十六型懷中 瑞西高級タバンシーマ 七石入アンクル鎖方針付 二十五年保證書付 當社定價二十九圓の品 大特賣中 十三圓に投賣
(トの四)二十個限 クローム側十二サイズ懷中時計 米國最高級品 ウオルサム 七石入アンクル三十年保證付 當社定價三十五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九十錢に投賣す (此の品に限鎖方針代別に二圓五十錢要)
(トの五)廿個限 クローム側十二サイズ 米國最高級品 ウオルサム 七石アンクル鎖方針付 四十年保證付當社 定價四十九圓の品を 大特賣中二十二圓に投賣す
(トの六)二十個限十二サイズ 米國最高級 ウオルサム 十五石アンクル鎖方針付六十年保證 クローム側當社定價六十五圓 の品を 二十九圓に投賣す 金側當社定價百二十圓の品 七十五圓に投賣す
(トの七)十個限り ウオルサム婦人用小型 懷中時計七石入アンクル 三十年保證クローム側 當社定價三十二圓の品を 十四圓九十錢に投賣す 金側當社定價八十五圓 四十五圓に投賣す

〔チ〕ウオルサムとエルジン 米國製腕時計 クローム側



(チの一)(三十個限) ウオルサム%型七石アンクル卅年保證書付 當社定價三十八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九十錢に投賣す (此品に限高級腕革代別に三圓申受)
(チの二)(三十個限) ウオルサム%型十五石アンクル五十年保證 當社定價六十二圓の品を 大特賣中 二十九圓 に投賣す
(チの三)(三十個限) エルジン%型七石入アンクル卅年保證書付 當社定價三十六圓の品を 大特賣中 十四圓五十錢に投賣す (此品に限高級腕革代別に三圓申受)

東京市杉並區荻窪一丁目大通

東洋時計合資會社

代金引換이란것은 地方의 本社로서 물건을 보내드려서 代金과 送料를 郵便局에서 支拂하시는것이며 爲替、振替로 보내실때에는 注文書에 品名, 番號, 數量, 住所, 氏名을 분명히 써서 보내시압

電話荻窪四一三三番
電話荻窪四一九八番
電話荻窪四八二三番
電話荻窪四九二三番
電話荻窪四〇〇四番
振替東京一九一六二
取引銀行第百銀行
取引銀行住友銀行

本社로오는路程

玆에發表한物品은臨時奉仕品의一部에不過합니다마는其他各種을豊富히俱備해두엇사오니지나시는길에一次來社하시기바랍니다 省線荻窪驛에서中野銀行前으로지나杉並區荻窪警察署前派出所에서約一丁쯤갑니다곳잇거롭니다

中部版

廿餘名婦女子에게 二萬餘圓大金詐取
永登浦署에서 逮捕取調中인 中年女의巧妙한犯罪

【永登浦】 설마여자가? 하는세상의방심과신용을이용하야삼십여명 부호파부들에게서신여만원의 거대한 금액을 사취한 중년여자의혐의사건이 서대문 경찰서에서적발된것은 아직도 우리의기억에새로운바인데 어제도 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관내에서 도전기와유사한 중년녀자의 이만여원 사기사건이 적발되여 방금엄중한취조를받고잇다

어제 사건의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본적을양주군진접면상리(楊州郡榛接面上里)에두고 현재 부내영등포정 이백인번지에 거주하는전화지(全化之)(三八)은수년전 부터영등포내에 거주하는 부호들의 부인네와 친분을매저가지고 백원혹은 이백원의 적은돈을 차용하야쓴후 기일이되면 성실하게가퍼서 신용을어더논뒤 나중에는 이삼천원의 막대한금액을 차용한후 그대로갑지안코 딸어버린것인데 그피해액이 어만여원이요 피해자가이십여명 그중에는 내지인부녀자의피해자도 이삼명이나 잇서서 취조하는경관도 그교묘한 수단에 놀래엿다는바 현재취조를진행중이므로 사건이 어느정도까지확대될는지는 추측할수업스나 상당한여죄가 잇슬모양이라한다

堆肥品評會
富平水組에서

【素砂】 경인선 소사역(素砂驛)부근에잇는 부평수리조합(富平水利組合)에서는 구역내(區域內)에 제일회퇴비품평회(第一回堆肥品評會)를지난이십오일 오전열시에 소사보통학교강당(素砂普校講堂)에서개최하얏는바 상품수여식(賞品授與式) 모범인물표창식(模範人物表彰式) 동조합수로감시원(水路監視員)표창식을 행하엿는데 내빈으로 유지다수열석하야 영시반에 폐회하엿다

農村振興運動을 家庭生活에轉向
金浦에서婦人講習會開催

【金浦】 김포군에서는농촌진흥운동에 강화철저를 기하기위하야 군내각개생부락 『更生部落』 부인부(婦人部)지도자취집령을 소집하야가지고 지난이십삼일부터이십사일까지 어흘동안 군청회의실에서 부인강습회를 개최하고 갱생계획의 실행과산업경제의발달조장등 각반에궁하야 농촌진흥운동을 실행함에 적의하도록 농촌부인으로서 종후의 임무에 대한강습이잇섯는데 당일강습이 끗난후에 회원일동이방금제일선에나가서 분전하고 잇는황군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기원하기위하야 조선신궁에 참배를하기로 결의한후 오후한시에 경성을향하야 출발하얏다

一金一萬二千六百四十圓 ……

洪川幼稚園卒業式

【洪川】 홍천유치원은 지난이십구일오전열한시부터 동원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다수참석하야 대성황을 이루엇는바 졸업생은 수어식을 거행하엿는데 수업생수는 ○십이명 유원지도에두고 나가는언니를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송별사 송별가 가지고 식장을 활호케하엿스며 동원주임의 어린이들의 재롱을 보고 외는손님을 즐겁게 하엿다고한다 다주엇다

長篇小說 林巨正 【76】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소굴 (四十四)

껵정이가 리봉학이와 황천왕동이를 다리고 남소문안에 와서 아침상식 참례하고 상식끄테 서사시켜서 떠듬순비한 전(奠)을 드리고 느진아침때 상주일행과작반하야 홍천사를 나오는데 리봉학이가 어듸잇다 왓는지 뒤에 따라오면서 가진 며치팡이짓을 다하야 열행을 웃기엇다 홍천사는 태조대왕이 신덕왕후(神德王后)강씨(康氏)의 혼령을 천도(薦度)하라고 이룩한절이라 처음에 문안 황화방(皇華坊)정릉동(貞陵洞)에잇섯는데 태조승하(昇遐)후에 태종대왕이 신덕왕후의 정릉(貞陵)을 황화방에서 양주 사마리로 천봉(遷奉)할때 절도 따라 옴기엇섯다 태종이 신덕왕후를 태조의 배위로치지아니하야 종묘(宗廟)에 묘주(廟主)를 뫼시지안코 릉침(陵寢)에 릉관(陵官)을 두지아니한까닭으로 정릉은 임자업는 묵무덤가티 되어서 무덤뒤의 곡장(曲墻)이 군데군데문허지고 무덤우의 욱새가 깊길이 잘앗섯고 홍천사만은 경산절로유수하야 문안의 큰시주를 만히밧는까닭으로 법당(法堂)도 일신하게 중수(重修)하고 중들도 근감하게 만하엇섯다

요부한 한첨지집에서 물력을 앗기지안코 큰재를합으로 중들의대접이 특별하야 상주의가족은 차치하고 상주의친구까지 치사가티 떠받들엇다

상사난때 불사(佛事)를 세우는것은 고려쩍부터 나려오는 풍속인데 불사의 큰것을 들어 말하면 상사난뒤에 한차례 중들을 청하야 빈소에서 법문을 떠는것은 일음이 법석(法席)이니야단스런기가짝이어섯고일칠일 일음이 식재(食齋)니 물력이만히드는중에 일칠일 첫재와 사십구일 마주막재에는 상가에서 물력을 더만히드릴뿐아니라 친척고구(親戚故舊)가 모두와서 보시를 쓰으로비드는것이 엄청낫섯고 또 소대상(小大祥)과 기고(忌故)날호를 집으로 청하야다가 재사전에 먼저 만반공양하는것은 일음이 승재(僧齋)니 중들의 인도를 바더야 혼령이 와서 운감한다고 미덧섯다 한양개국후 칠팔십년까지는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도 불사를 의례히하든것이데 성종대왕 즉위원년(卽位元年)에 법을 세워서 이것을 금하얏다 사대부들은 국법(國法)이 두렵고 물의(物議)가 무서워서 차차로 못하게되고 여염(閭閻)에서 몌풍속을 직혀서 하기는하나 기강(紀綱)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다는 사헌부(司憲府)관원들이 어알고 까다럽게 굴면 국법에 비처서 죄책을 당하게되므로 관원을 잘기이는사람이거나 또는 국법을 우숩게아는사람이라야 비로소 예전세월가티 상사에 불사를 세우할수잇섯다。 한첨지의집은 대대로 불사를 정성을 드려서 어른상사는 말할것업고 어린아이 초상에도 법석을 차리고 사십구일 지난뒤 백일에도 굉장한재를 올리는집인데 홍천사가 단골절인까닭으로 조만한 재나 불공에는 얼굴도 내노치안는 주장중이 나와서 여러 젊은중들을 다리고 친히 재를 올리엇다

보시를 쓰게될때 로밥이가 꺽정이를 와서보고 보시쓰게 상목 한필만 달라고 간청하야 꺽정이가 상목 열필을 세사람이 똑가티 세필씩 쓸가량하고 한필은 로밥이를 내주엇다 로밥이가 보시꼿는것을 꺽정이는 보지못하엿스나 노핫스러니하엿더니 저녁때 재가 파하야 문안으로들어올때 황천왕동이가 로밥이 허리에 상목한필 둘러감은것을 보고 꺽정이에게 말하야 꺽정이가 얼부러 길까에서 뒤에오는 로밥이를 기다리고 잇섯다 로밥이가 아페와서서는데 허리에 감은 상목이곳 두루막이 아래로 환히 다 보이엇다

『왜 안가시구 여기 서섯슴니까』 로밥이의 뭇는말은 꺽정이가 들은체안코 『너 허리에감은것이 무어냐』 하고 호령끼잇는말로 물엇다 로밥이는 제허리를 굽어보며 『이것 봐 환이 보이네 일껀 선다님 못보시게할라구 감춧는데』 하고 능글능글하게 말하얏다 『이눔 네가 얼마나 죽구시퍼서 나를 소기느냐』 『지가 선다님을 기망할리가 잇습니까 처음에 보시를 찻습지요 아니 노라생각하니까 부처님이 쓸것가트면 앗갑지안치만 까까중이눔들이 쓸것인데 앗갑드구먼이요 그래서들 우 집어가지구 왓습니다』 『잘말 두 풀려서 이리 내란』 『선다님 주신것을 몰후 뻬스서럽니까』 『주먹으로 어더맛기전에 얼른 풀러내란』 로밥이가 양괴안코 순순히 두루마기를 벗고 친친감은 상목을 풀려서 꺽정이아페 사려노핫다 꺽정이가 황천왕동이를 돌아보며 『이것을 얼른갓다가 절에 주고 오너라』 하고 일러서 황천왕동이가 상목을 거두어놀고 홍천사로 다시갈때 로밥이는 황천왕동이의 뒤를 바라보면서 『선다님두 이심하십니다』 하고 꺽정이를 매원하얏다

人夫四名이重傷
"다이나마이트"爆發
京春鐵道衣岩"런넬"에서의慘事

【春川】 경춘철도(京春鐵道)공사장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여 공전의 인명참극을 연출하엿다 경춘철도 공사는 명춘개통기를 기하고 주야겸행으로 공사를 진척중인데 춘천군신남면 의암리(春川郡新南面衣岩里)"런넬"공사장에서 지난이십삼일 오후칠시경 저녁여섯시에 교대하야 백미들이나되는 광사장속에 들어가 바위에 구녕을 뚫든중 여레구녕속에 폭발이 되지안코남어잇든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여 김승록(金承錄)외 삼명이 중상을 당하고 그외사람도 다수 부상하엿다는데 부상자의주소씨명은 다음과갓다

平南龍岡郡金谷面 鄭根順(二五)
三陟郡北三面北里 朴東奎(二七)
洪川郡斗村面 金承錄(二七)
春川郡春川邑大和町 崔永培(二八)

이러한 참상이 발생한것도알길이 업스리라고하는데 그가련한 광경은 목불인견이며 그의가족들은 아직도 참상을 모르고잇다고하며 태원방에서 생활고에쫄리어 몰려들어온 인간들이라 한다

仁川을起點으로 對支航路遂決定
靑島、上海、大連等地에

【仁川】 조선기선(朝鮮汽船)에서는 인천항기점으로 청도(靑島) 상해(上海)의항로를개설하고저 하는일방 대지무역의 진전에 박차를가하야 지난 이월십팔일 회령환(會寧丸)(일천십톤)이인천항을떠나 진남포(鎭南浦) 대련(大連) 청도(靑島)를거처인천에 귀항하엿스며 오는사월십오일부터는 평안환(平安丸)(일천오백팔십이톤)이 인천항을 출항하야 진남포 군산(群山) 목포(木浦) 부산(釜山) 상해(上海)등지를돌려 인천에 귀항할 예정이라는바 매월이회의 항해를 하기로되여 동방면과인천의 무역은 다시진흥하게되엿다

洪川公普卒業式

【洪川】 홍천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이십이일 오전열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제이십륙회 졸업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바 남녀합 일백여명의 졸업생중 우등생남녀합 십륙명이라하며 전기씨명은 다음과갓다

男子部 金正國 姜喜均 柳用均 朴永福 李源鎬 諸有衡 李千萬 黃胶性 南呂埰 金正洙 金玉成
女子部 鄭月亭 金恩玉 李今蘭 南極玉 嚴基璞

貞淑女學校閉鎖
지난十九日卒業式을最後로
洪川人士努力도水泡

【洪川】 홍천지방은 오늘에이르기까지 초등교육기관이 완비치못하야 자녀들은 거주민으로하야금 수미를 펴지못하야 왓슴은물론이거니와 더욱비한한 가정자녀들의 교육기관으로 유일한홍천사회기관인 홍천정숙여학교(洪川貞淑女學校)는명치삼십팔년에 창립을 보게되야 그후이십년 명치사십년에 정식으로학령기에 잇는부산아동들을 모집하야 무료로교육하야 오든바 연에 금차감을 이루워 오든바 다시금 대정이년 회재보협에 비로소 조선총독부의 정식인가를바더 금일에 이르기까지 졸업생일백일명이라는 성과를 보앗스나 선교회가 우리조선교육계에서 인연을따라 우리의유일무이한 홍천의 사회기관도 폐문의비운을 당하야 홍천기독교회와 지방민 명문이 초조하야 협력조합을 맹세하고 부흥의선후책을 강구하야 수년동안가진 파란곡절을 물리치며 무산아동을위하야 노력을하야 나려왓스나 영사업의 현시적자부를 보지못하야 열들의 서광을 못보고 지난십구일 졸업생의명을 최후로 영예문의 비운을당하고말엇다

이사실에 오전십시부터 이천군회의실에서 제이십회 학교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소화십삼년도의 이천군내 학교비의 세입세출에대한것을 심의한바 안협선출의원고구학(高九鶴)씨로부터제일먼저 질문을개시하야 어천농민학교의 일년간경비는 삼천팔백여원으로 재학생 삼십명에 대하야매인당 백이십팔원에 달하니 그실적이 어떠하며 농민학교만회재보협에 가입하고 기타보교는전부 회재보협에 가입지안은데 서 농민학교는 삼십명에아동문겨비가 이십원이고 보통학교는 수천명에 오십원의 보건비는 도지 예산을 편성한 정신이 어대잇스며 내년도에 이천군 내의 학교중 사년제의보교가 학년 연장이 한학교도되지안코 더욱이 월엽 공보교는 삼학년 연장의 소요기금으로 삼천여원을 학교비에서 기부까지 밧고 실현치 못하엿다는것은학교비의 면목이어대잇는냐?하는 조리잇는 질문전이 잇섯고 각의원들이 학년연장에 대하야역설한바잇섯스나 원안가결되고 당일자문안은 다음과갓다

第廿回伊川郡學校評議員會

【伊川】 강원도이천군에서는지난

諮問案 第一號 昭和十三年度 伊川郡學校費 歲入 歲出豫算決定의件
第二號 伊川郡學校費戶別稅附加金 賦課率決定의件
第三號 普通學校新設決定의件
第四號 伊川郡學校費基本財産處分件

報告案
第一號 昭和十一年度伊川郡學校費歲入歲出決算報告의件

昭和十三年度伊川郡學校費歲入歲出豫算
歲入
一金七萬七千二百四十六圓 經常部
一金六萬五千六百二圓也 經常部

金浦蹴球大會
大串普校優勝

【金浦】 김포체육회(金浦體育會)주최와 본보김포지국 후원인 김포제일회 초등학교대항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일오전열두시부터 김포읍내가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여 동일오후다섯시반까지 자못성황리에 끗을마치엿섯는데 참가학교가 여덜의 학교로서 최후의 우승은대곳보교로 도라갓다한다

傷病兵慰問
演藝會開催

경기도 군사후원회에서는 여십칠일 오후한시부터 용산육군병원구내에 가무대를만들고상병병 위안연예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全朝鮮米穀關係者를 仁川에召集懇談
朝取仁川支店서招請

【仁川】 최근에 벼(籾)검사의개식 제출하엿다한다 더욱 이에랑이 현저하므로 조취(朝取)인 따라 전조선 처인소도 련합할 필요가 잇슴으로 조취인천지점에서는 벼에대하야 수년내연구를 하여왓섯는데 지난십오일에 그성안을 보게되여 미곡연구회를 개최하고 미곡관계자를 전합하야 신중한논의를한결과 생산자와 정미업자는 대찬성으로 아므로도 연구의여지가잇다는 천지에서 구체안을미결정으로 산회 하엿다하며 조취당국에서는 이기회에 미곡연구회의인가를 총독부에 정 다한다

장 전등(田藤)씨는 이문제에대하야 수년동안 연구를해오결과 그의권저가 주식이되여 전조선처인조당사자를 초대하야 오는 사월이십삼일 조취인천지점에서 런합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중협의를 하리는데 조취인천지점장 전등씨의 명의로 전조선각처인소에 출석권고의 통첩을발하엿다한다

江原道에應募激增
自動車運轉手試驗

【春川】 강원도보안과(保安課)에서는 지난이십일부터 삼일간 자동차운전수의 학과와 실지시험을 보엿는데 이에응모자는 멀리평북(平北)에서까지왓스며 지원자수는 신규(新規)일백오십오명 계속(繼續)시험칠명 특수(特殊)가한명 합계일백칠십이명으로 작년보다 오할이나 증가되엿다는데 발표는사월팔일경이라고한다

兩制度實施祝賀
四月三日을卜하야
洪川官民合同으로

【洪川】 지난이십사일 오전열한시부터 홍천군회의실에 각관공서장및 지방유력자 다수가 참석하야 장시간에이르러 구수협의가 잇섯다는데 사월삼일을 복하야 조선인지원병제도 시행급 조선교육령개정을 보게되야 동일의성황을 예기하고 만반의준비를하리라하며 동일은 군내각면민이 총동원하야 식을거행한후 물론 홍천읍에서는 오전구시부터 홍천신사에 면민이 참진하야 봉고제를 거행한후 기행렬 강연회개최 기념식 축하연회등을 성대히거행할작정이라한다

七十老翁自殺
原因은生活難

【春川】 황천계곡에서 세상을비관하고자살한 가이업슨 노인이 발생되엿다 본적을 춘천읍욱정(春川邑旭町)주소부정한 박명출(朴明出)(가명)(七二)은 처자도업시 여집저집으로 굴러다니는 생활을 계속하다못하야 이사바세상을 죽엄으로 청산하고저 지난이십이일저녁 춘천공동묘지(春川共同墓地)부근 어떤소나무에 목을매고 칠십평생의 인생고를 청산

竊盜前科者로서 이번엔就職詐欺
犯人은永登浦署에被檢

【永登浦】 본적을시흥군신동면봉천리(始興郡新東面奉天里)산백이십팔번지에두고 일정한 주거가업는전과이범 리점남(李占南)(二九)은 절도사기죄로복역(服役)중이다가 작년십이월십일에 만기출소(滿期出所)된자인데 지난이월이십일경 취직을빙자하고금전을 사취할목적으로 부내도림정(道林町)산팔사번지박기대(朴基大)의 장남복석(福錫)(一六)이라는소년을 『기린맥주』회사 급사(給仕)로취직시켜주마고 거짓말을하고 오원을사취한외에 각처에서 자전거신탄등 오륙건의절도질을하다가 수일전영등포서안양주재소(永登浦署安養駐在所)에서 검거되여 용의자 김용식(金容植)씨에게 취조를받는중이라한다

祝西上分局設置

安義金融組合 西上支所
理事 崔鶴容 鄭主錫 沈範燮 金尤甲 秋封映

西上面
面長 嚴圭變 朴鍾俊 李佑尤 朴政奎 崔在東 李萬元 李宅善 鍾

西上公立普通學校
校長 田中美則 張乙文 權泰安 李慶來 李鎬永

安義產業組合 西上支所 金元譿
西上面玉山里 金奉圭
大南製炭所 金春甲
西上精米所 金沅澤
西上面 面協議員 李炳文
上南里製炭製材所 崔占東
西上釀造合名會社 河公鉉
西上面德裕山製材製炭所 都元碩
咸陽郡西下面 面長 孫萬武
咸陽砂防事業所 西上面事務所 沈玄奎 錫
安義產業組合西下支所 李學誠
咸陽郡西下警察官駐在所
西下公立普通學校 校長 鈴木鏞
西下公立普通學校 河毅禎
西下面 韓宗煥
咸陽郡西上警察官駐在所 部長 辻義治
咸陽郡西上警察官駐在所 洪 胤
西上面大南里 金泰漢
大南里 李甲烈
芳池里 金祐圭
靈覺寺
西上面中南里 李圭煥
上南里 曹達俠
上南里 吳率基
上南里六十嶺 都在福
西上面芳池里 趙福基
面協議員 崔丙東
大南里 徐栢鎭
西上面大南里 尹炳玉
面協議員 朴 炳培
面協議員 李永暉
面協議員 徐明鎭
面協議員 林錫奎
西上面大南里 鄭昌錫
西上面田法代書事務所 今井一
西上面大南里 趙善濟
西上面上南里 朴相基
西上面道川里 李萬植
咸陽郡西上面大南里 花田郭 理化 朴泳
西上面金塘里 朴益鎭
西上面金塘里 池雲根
西上面玉山里 陳相大
都在烈 고무靴商店
咸陽邑內 徐四琇宛
馬山府上南洞七九 建築業 任汨英
大南里 徐漢鎬
大南里 朴鍾宣

必讀 肺患 診斷常識

…당신은…
●정신수척해가지는안는가
○약간기침과 담이나오지는 안는가
●三十七度二三分의熱이毎日午後부터 夕陽에걸처서 나지나안는가
○盜汗과 不眠이 繼續되지나안는가
●어쩐지 몸이무겁고 胃腸도나쁘고 食慾不進의 날이繼續되고 動悸가나고 숨이갑브고 어깨가결리고 가슴이 아프지나안는가
●기침이 만어지고 담이 만코 때로血痰이 석기지나안는가
○貧血과 衰弱이 더하고 顔色이나빠지지나안엇는가
●每日三十八度가차운 熱이나지나안는가
○咳嗽、不眠、喀痰、喀血、下痢、倦怠… 胸痛가튼 苦痛이업는가
…어것은肺病初期의症狀입니다…

…어것은肺病의第二期症狀입니다…
그러나 悲歎마시요 正當한療法으로
肺病은!
…治療된다……
……正當한療法…
肺病들어는 只今곳 『朝鮮日報에서보앗소 冊을내시요』라記入한 葉書를 左記의寺로 보내시요 釋迦님의 金言을 基礎로해서正當한 治法을가르킨 "肺病治療의原理"와 寺傳秘方公開 "光明のあなたへ"의 二冊을
無料送呈
다니한 빨리어 가르침으로 肺病 肋膜炎을 征服하라
大阪府布施市
功德山德林寺

眼科 大明医院
院長 金廣業
平壤竹典里 (和信東隣) 電話一三八五番

奉天測量學院生徒募集
(詳細來問) 京城府堅志町七四
▲本科五十名 ▲速成科五十名 ▲研究科若干名
▲學則要二錢切手 ◆奉天市十間房郵政管理局前(電話二二四六六番振替奉天三三四七番)
▲出願期日四月二十日 ▲考査日五月三日

誠信女學校生徒募集
本科 高等科 補習科 十二歲以上女子 普通學校六年卒業者 普通學校六年卒業者中再修志望者
(詳細來問) 京城府堅志町七四 (電光一九六二)
出願 自三月廿日 至四月廿日 出願 三月末日限 四月十日限
本校特色 1長年女子教育 2家事裁縫實踐教育 3補習科…上級學校入學準備

明新高等普通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 五十名
募集人員 出願期日 四月九日限
試驗日 四月十、十一、十二、十三日
(書類要三錢切手)

就職近道
第四期
奉天 大滿測量學院 生徒募集
處女地滿洲에는장차보조가필요로하는 測量技術者。
▲卒業期限三個月短期 ▲出願期日四月二十日(期限前에라도定員이되면締切)
▲開學日五月五日 ▲學則請求時要三錢郵票 ▲科目測量、平板、高低、曲線、製圖法、製圖、積算法、滿洲語、滿洲法規 ▲校舍奉天市平安通十二(電話(三)五七二〇振替奉天番四九六)

中央基督教青年會學校
入學志願期日 三月三十一日迄 考査日四月一日午前九時ヨリ

醬油調味料 (郵便切手二十錢送レバ見本送ル)
昭和アミノサン釀造所 (營業案内書進呈)
釜山府月一町電車終點前

校名改稱
晝夜授業 (京城中等公民學校改稱)
校舍新築
京城商業實踐學校
●本科出願明限 晝間四月二日夜五日限 ●專修科出願期限 四月九日限
▲晝間部第一校舍 ▲夜間部第二校舍新築中 四月一日ヨリ實施
太平通大漢門橫

輔仁商業補習學校 生徒募集
出願期限 三月末日 第一學年 男子五十名
試驗期日 四月五日早己 京城府內需町一四五 電光二六六六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午後授業 ▲中等科 第一部、二部、三部 文官科
▲新學期開始四月十六日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 (電話本局五三六〇)

第五十四回生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 (夜間)
▲新學期開始四月十六日 ▲各科專攻 ▲各官廳、銀行會社、商店等就職紹介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 (電話本局五三六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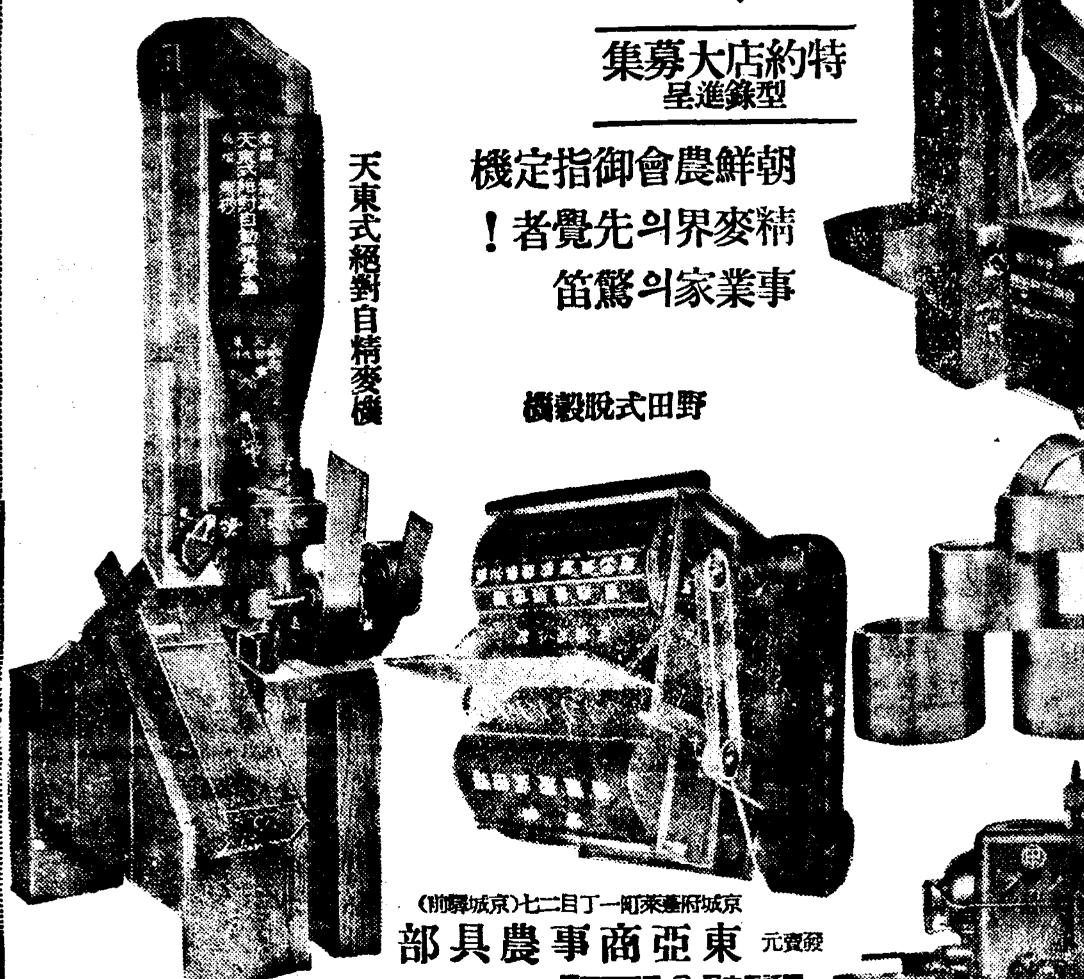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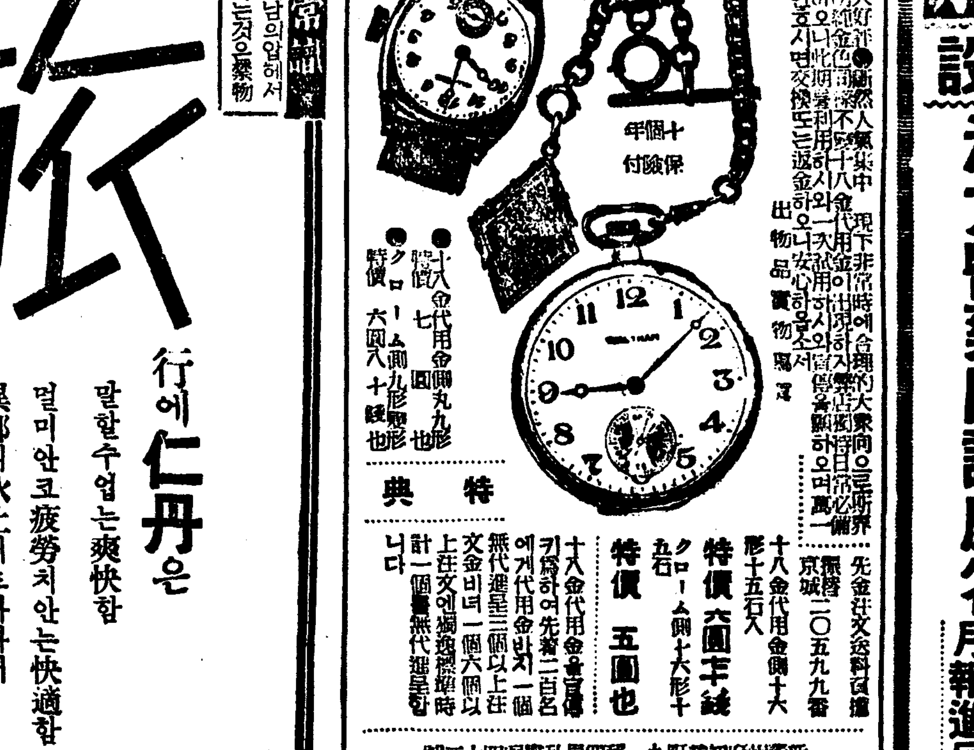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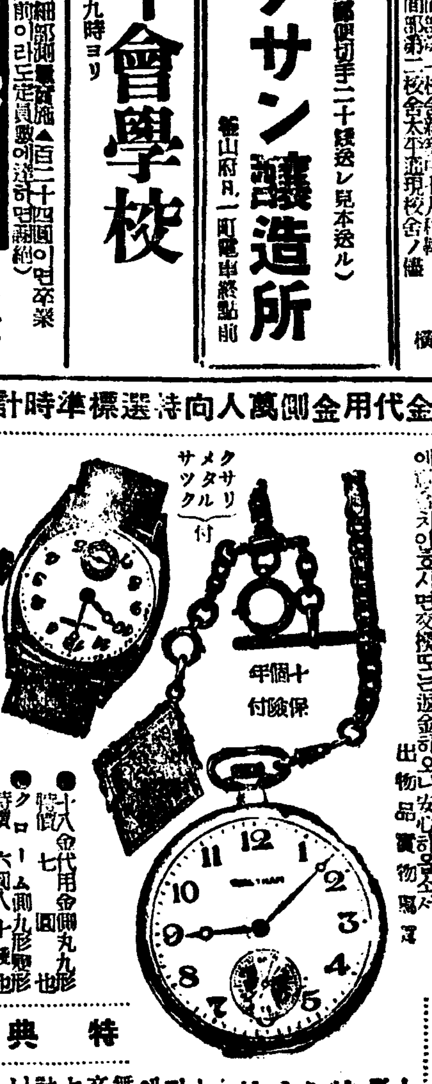
大聖院測量學(…)講習所 生徒募集
出願期日 四月十三日限
開講期日 四月十五日午前九時
平面、測量、土木設計、製圖、三個月修了、六個月卒業
龍井 間島

五千年歷史漢方醫藥
創業 明治二十五年
世傳秘方 百種靈藥・蔘茸唐草材
藥種貿易 製藥診療
法橋局
平壤鐘路
電話 長一九六五番 一九六五番
振替口座京城三八七四番
特設 漢方醫藥問議應答
한방의약 문의응답
處方精製
月報進呈

十八金代用金側萬人向特選標準時計
クサリ メタル サック付
十個年 保險付
●先金注文送料呈擔
●新規大好評●斷然人氣集中 現下非常時에合理的大衆向으로斯界에一大旋風을이르킨 十八金代用金色이純金과一分도다르지안는 實物은 使用하실수록 그 性能을 發揮합니다 ……
●十八金代用金側丸形十五石入 特價 六圓五十錢
●クローム側十六形十五石 特價 五圓也
十八金代用金 無代進呈 ……
振替京城二〇五九九番
新義州府彌生町九 郵便局私書函四十二號
東洋米行時計部

昭和の常識
아해는貿하는대남의압에서 體面上괴롭게하는것은藥物
旅行에仁丹은
말할수업는爽快함
멀미안코疲勞치안는快適함
異鄕의水土에도마자서
旅行에仁丹이야말로
必携의懷中藥
仁丹五、六粒을爽快、十粒으로元氣

登錄商標
天東式純無水精麥機
特約大店募集
型錄進呈
朝鮮農會御指定機
精麥界의先覺者!
事業家의驚笛
天東式絕對自精麥機
野田式農機
動力界의革命兒!!
農村振興의羅針盤
野田式籾摺機 自動式函型
野田式ゴムロール
野田式脫穀機
ノダ式石油發動機
發賣元 東亞商事農具部
京城府黃金町一丁目二七(京城驛前)
電話長本局 五四四四番 振替口座京城二〇四三九番
(トアハ(ト)ヌ(ト)アト)

軍需工業方面以外 市中資金은窘塞
商品市場은平調繼續

二月中 京城 商品·金融
殖銀本店調査

米 前月末에行한 朝鮮米政府買上決定量이 意外로 僅少하얏슴과 在米가豊富하얏슴으로 人氣는不振이오 다만正租는 浮動品이적어서 底堅히保合하고 上旬은 玄米가月初에比하야 卄錢方을終了하얏는데 玄米는中旬에入하나 內地人氣가不振하얏슴으로 買氣不動이고 持米側은 賣氣를보기에至하얏다

本月十日現在各道在米는 百六十二萬石에達하고 前年同期에比하야 約十五萬石의 增加임으로 內地로부터의 買付가 不振하리라고 觀察되엇스나 正租는 漸稀 採算이 有利하다하야 實需側의買付가 多少活氣가잇서 依然 底堅한氣配를示하얏다 下旬에入하자 先高人氣가 擡頭되고 特히名古屋以東의 産地買淸에依한 品薄과 豫想된 政府의買上實施를期待하고 氣配硬化되여 卄四日은 玄米가月初에比하야 卄錢高인 三一圓五〇錢, 正租는 二圓九錢二厘로 當月中의最高價를示키에至하얏스나 所持側은 不急하고 거의保合狀態로써 平調裡經過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三等白米	三一圓二〇	三一圓二〇	三一圓四〇
格玄米	三〇圓〇〇	三〇圓三〇	三〇圓四〇
上 租	九錢〇五	九錢〇五	九錢〇三

粟 米의豊作에因하야 어方面으로消費增加를傳하고 粟의需要不振이오 滿洲其他로부터의 粟의輸入은 昨年同期에比하야 激減을示하얏는데 어쩌든 價格으로서는 保合되리라고보이고 價格은常分持續되리라고보이고 價格으로서는 昨年同期에比하야 五、六十錢低이며 當月中의市勢는 漸騰을示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滿洲粟	八圓二〇	八圓二五	八圓三〇

大豆 産地中心以下의所持品은 出廻豫想이오 新規出廻이豫想만하엇으나 一方 滿洲産地의出廻減少와 滿洲商出廻가 不振하야 下旬은 二、三十錢의見騰을示하얏다 滿洲産地의 出廻減少 下旬은 多少活況을呈하얏다

小麥 在庫品이적고 需要에 應하지못하야 市勢도 保合되고 外麥、內地麥의高低에 多少影響되는 程度이엇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京城小麥	三圓六〇	三圓六五	三圓六〇

繭 主로서 製絲側間의 賣買가 約二千貫의 取引이엇섯는바 市勢는

市勢	上旬	中旬	上旬
破 安	二圓四〇	二圓八〇	二圓六〇
通 繭	二圓四〇	二圓三〇	二圓三〇

肥料 肥料中의 統制肥料硫安은 各地法實施期에入하야 需要가 增加하고 硫安은中旬부터 實需期에入하야 需方의 實需는相當히 增加되엇스나 先物賣買가업고 또 取扱手數料의 儀少等으로 肥料商으로서는 妙味가적고現物注文이 殺到되엇스나 輸送關係로 直時實需家의 希望에 맞지못하는等 配給上念慮가 엇섯다

過燐酸은 原料關係로 依然先高氣配이나 實際價格은 例年의 約二倍에當하고 需要不振으로一部所持側의 賣物이 散見되엇다 大豆粕은 滿洲奧地의出廻難과 油房不況으로 安東油房側의賣物이업는 一方需要家는 買低하야 買進치안코 安東乘二圓二〇錢以內著物色하면서 相持裡越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硫安	三圓一	三圓一	三圓一

綿油 當月前半不動으로 越月하얏다

綿糸布、人絹 人絹布는不動이나 綿絲布는「스、파」混紡轉換期에當하고 市勢는 旬日上昇되고 賣行이 至極活潑하야 月末은 特히急騰하엇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三A 綿布	三三圓	三三圓	三三圓
任月 綿絲	三〇圓	三三圓	三六圓
人絹 熟糸	一圓五〇	一圓五〇	一圓五〇

土建材料 木材는 先高氣分으로 主로서 內地杉及一部新義州材와 北朝鮮材의 入荷가잇섯스나 實行이 多少잇는 程度이엇다

金物은 冬期中의需要가적엇슴으로 一般小口物의 賣行이잇고 昨年同期에比하야 三、四割程度의增加이엇다 市勢는 下向되어 越月하얏다

金融 輸入爲替許可制는 常態化되고 一般金融도 可能하야 安定되고 各銀行共히 預金增加傾向을示하얏스나 當面的으로 前月에 比하야 期待이 顯著한 金融利潤의 資金利低下傾向이고 또公債消化도 良好하다고보이나 商品市場은 繼續物資生活必需品方面을 除하고는 一般으로 平調를持續하는中이다 資金은輸需品의 需要가잇서 軍需工業方面以外의 資金需要는 不振하다고 判斷되엇다

府內組合銀行月末帳面末은 預金 六億八千萬圓, 前月末에 比하야 三千圓高, 貸出 八億四千萬圓, 貸出 七百七十萬圓 增加

市勢	上旬	中旬	下旬
北松 市況	三錢	三錢	三錢
外 四四寸角	八錢	八錢	八錢
杉 材	六錢	六錢	六錢
厚 平均	(四圓)	(四圓)	(四圓)

各道의當業者로 統制組合結成
混紡糸도包含·需給圓滑圖謀
綿糸의合理的配給策

原料不足은難免

朝鮮의 綿組合을 結成시키도록 하는中이다 各道綿絲統制組合의 組織大綱은 다음과갓다

一、朝鮮에서 綿絲(스·파混紡絲도包含)를 原料또는 材料로하야 製品의製造又는 加工業으로하는者의 所要綿絲의 配給統制를 圖하고 各道統制組合은 右記業者를 組合員으로하야 그配給의 圓滑을 目的한다

二、朝鮮의 綿絲販賣業者는 組合을 組織하야 內地로부터의 移入綿絲도 朝鮮內紡績工場에서 供給綿絲를 確保한다

三、工業者는 各道를 單位로統制組合을 結成하야 每月所屬組合員에對하야 所要量을 配定하고 또綿絲販賣者는 配定數量의 範圍內에서 綿絲를販賣한다

綿絲統制問題도漸次重大化하여젓슴에 鑑하야總督府殖産局商工課에서는 그需給調整對策에對하야考究中이엇는데 去十四、五兩日各道關係官을召集하고스테이플·파이버 混用에關한 協議會를 開催하는機會에 綿絲配給合理化對策에 關한 具體的協議를하고 愼重硏究中 各道에 當業者를 組合員으로하는 統制組合을 結成시키어 綿絲의 合理的配給을하야 需給의 圓滑을 圖하기로되여 目下綿絲移入商側과의 兩者를 組織시키어 兩者가 當局의 指導에依하야適宜히 需給의 便을圖하려는것이다 그러나 綿絲의移入量은 從前보다 當然히 減退될터로 어버의 統制組合結成도綿絲의不足을 緩和하는 根本策이 될수업슴은 勿論이다

綿絲消費配定
朝鮮除外犧牲
細番手絲、瓦斯絲移入確保를
어디까지要求運動

棉業統制에依한 綿絲의國內消費量調整키爲하야 過般設置된綿絲配給統制委員會는 綿絲消費配定에當하야 朝鮮을除外키로 決定하엿는데 朝鮮의綿業關係者는 通行을重大視하고 伊藤忠商事支店長市村重男 東洋棉花支店長本永實一兩氏는 最近急遽渡東하야 渡東中의 總督府鈴木商工課事務官과가티 商工省에 朝鮮의綿絲配定要求에 對하야 折衝中이다 그리고 朝鮮에의綿絲移入은 昭和十一年度四萬六千俵 昭和十二年度 二萬七千俵로 朝鮮內紡績의 擴大强化에依하야移入은 減少하고잇스나 移入綿絲의 八割을占하는 細番手絲와 까스絲는 朝鮮內生産이 업기때문에 最少限度이것만은 移入을確保할必要가잇서 關係方面에서는 極力商工省에折衝 綿絲配給配定을 要求하는 强硬意向을 가지고잇다

綿絲需給

最近의 朝鮮內綿絲需給의 槪況은 如左하다 (單位俵)

	十一年	十二年
朝鮮內工場生産	三四、五〇二	五〇、〇二七
移入數量	四六、〇九九	二七、九〇〇
輸入數量	二、〇三一	三〇二
輸出數量	八〇一	一、〇二一
朝鮮內消費量	八一、八三一	七七、一〇八

朝火北支進出

朝鮮火災의北支進出에對하야서는 昨冬吉...

土協賦課金引下

土木建築協會의 新年度豫算은二十五日의 評議員會에서 協議한 結果 問題의 賦課金率引下는 다음과가티 決定하얏다

▲土木請負 受託額의 千分의七(前年度千分의 一〇) ▲建築工事 同千分의五(前年千分의七) ▲特別은 隨時變更 따라서 이에基하야 十三年度豫算額은二十五萬圓으로 決定하얏는데 前年에 比하야 約九萬圓의 減少라고한다

村支配人이 現地를 視察調査하고進出의 意向을 確固히하야 準備를進行하고잇는데 北支의現狀이아직常道에 回復되지안엇스므로 一段落을기다려 下期中에는 出張所或은 有力한代理店을 設置할方針이라한다

各市場打診

形勢觀望

株式 買方의 投物一巡、罷換合併으로 底成된 歐洲의 不安으로 昨週末 猛然反撥한 市勢도 今週에 드러서는 材料의 凡化와 함께 賣買雙方이 傍觀하야 一進一退의 保合으로 終始하다가 週末同調裡에 週를바꾸게되엇는데 材料的으로보다면 國際情勢有利展開、金融緩慢、인플레昂進、戰局의進捗、北支開發工作의 着着進捗、議會終了解消等等 모두買方에 加擔하는 듯하나 어딘지 不拘로 積極買進치안는 것을보면 大勢는 買妙味가잇다고 보면서時期尙早로보는 눈치며 아직도買進하려하기보다는 賣下하려는傾向이 多分하야 看取되므로 尖資人氣가 어거리 弱하면 市勢의 急激한 好轉도 期待薄이라할지나 그러타고 또무엇을 材料로 賣迫할것인지 賣方의 根據도 薄弱하다 어려고 보면 材料다운材料가 出現하기까지는 保合이 繼續될것으로 따게될수업는 形勢를 觀望하면서 投勝이잇다든데도 經濟界의 一般情勢로보아 深入落도 또한 暴間할것이어 못될것이니 오히려 時局的銘柄을 저근市勢라 해폭 月末一振이못되드라도 來月에는 一場活躍을 期待하여도 無妨할것을 期待는 ...

買上決定後를期待
一進一退의浮動

期米 月末도 어미 數日을남긴것會 뿐인데 조금도 活潑한 動向을 보이지못하고 一進一退의 浮動을 繼續하고 잇슬 뿐인데 어와가티 伸力이 鈍한 것으로해서 嫌氣賣物도 相當히 잇스나 그러나 崩壞할만한 步調도 보이지안코 오히려 市勢 方으로서도 新規擴大업는限 買方도 困難하므로 大體는 買上決定後의 正米事情을 보기까지는 大變動이업슬것으로 좀 바게얼고 月末에 가까워 잇스므로 買味는 當限前에 集中될 順序測하는이가 만혀 아직도 押目買를主張하는편이 多한것은 어느意味로나 注目된다

公定價引下豫想
新低價崩落!

綿絲 今週中의 綿絲는 先限이二百十六圓臺의 新低價로 崩落케되엇는데 어原因은 勿論 米棉低에 基因한것이나 그보다는 綿絲現物市勢의 現狀은 純綿、混紡을 不問하고 太番中心으로 品薄을 告하야 最高價即最低價의 觀을 뭇하고잇스나 綿綿絲는 絲로 換算하야 十七萬五千梱을 輸出할 方針이되어잇는데 輸出綿布의 國內信用도 今月限으로 今後는 嚴重取締할것이므로 어事情을 생각하면 十七萬五千梱輸出은 理想에不過하야 現在의情勢로는 不可能이며 輸出不振、國內信用不能하므로 最高價格으로 到達하리란 豫想도 多하야 綿綿絲建인 消費은 買妙味가적어 崩落된것이니 最高價如何로는 一層下勢에 拍車를 加할 順序나아닐는지?

海外市場混沌으로
當分間好轉期待難

生糸 海外市場의 環境不透明으로 低迷 不安外에 三二十圓臺의 高價를 보엿스나 自國市場의 回復難에 歐洲不安까지 加하야 混沌狀態를 보이고잇서 紐育現物賣買의 活潑化는 到底히 바랄수업다고보여 悲觀人氣가 擡頭하게 期近中心의 投賣가 連發되어 모두七百圓大합이어 어느 ...

依然買人氣堅强
先高觀이濃厚

人絹 相當한 高價로 買進되어 東京은 八十圓臺突破한 市勢까지 보엿는데 人絹도 良으로 利喰急賣物이 出現하야 市場 人氣가 强하야 先高觀은 依然濃厚하나 下押一息商狀이되고 場面도 多少閑散化하엿스나 突込買物이 업는 限 押目은 買하려는 人氣가 强하야 ...

鈍重
堅强이나
今日의市勢(卄六日)

株式 前場堅保 議會會期 一日延長으로 電力案이 多少問題되나 큰人氣의變動도 업고 外電暴落으로 昨止의 堅强味도 다시 鈍化寄付하야 東新不變 鐘紡七低를 보엿스나 仕手의 依然한 鎖候으로 大幅變動은 업고 高價保合을 거듭하다가 東新百...

市場六感

(株)……七三議會는 無事히 終了되고 電力案도 通過되엇스나 財界로서는 喜悲交錯의 感情▲米國市場의 株式惡化는 爭勝이아니한 勤向을 示現▲槪括的으로보다면 周圍의 氣流는 그다지 惡氣流가아닌듯하나 그러타고 어것만으로 株式을 動케할新材料은 주지못할것이 確實▲結局 新動氣商狀이란 言의評言에 그칠것이다 아니게 새로 새로운 舊材料의 一段落을 지음 時期가 不遠한것, 將來할 人氣를 ...

(米)……春寒一過後氣溫도 漸次上昇하야 各地花信은 本格的으로 開戰▲이로부터는 春情을 賣春、探春의遊賞客이 增加되어 各方面에서도 벌써三春行樂을夢想▲市勢도九十春光을 마지하라는 準備工作을하는지▲看板는 의自然 勢力으로 ...

越月後를期待

周圍諸情勢의解釋에對해서는 一部의觀測과가티 現在와가튼 好材에싸혀 엇기때문에 諸株가 이만한高價를 維持하고 잇는것이오 이材料가다시 材料化하야 新高價에로 活躍根據는 못될것이니 買方이자랑하는好材도 어제는 올러먹을데로 올려 材料이므로이제 만약 材料가 出現한다면 大暴落以外에는 道理가 업다는 說도 現實을巧妙히 捕捉한말일 것이다

▲人絹 前場 後場
一節 九二〇 一、一二〇
二節 一〇、一〇 一、一一〇
三節 一〇、五〇 三、一〇

▲棉花 前場 後場
一節 九、三〇 一、二三〇
二節 一〇、二〇 一、三二〇
三節 一〇、三〇 三、〇〇

▲綿絲 前場 後場
一節 九、四〇 一、四〇
二節 一〇、三〇 二、一四〇

國債賣買薄(東京電話同盟)

依然 刺戟材料가 될만한것이 업서 小口賣買가 多少散見되고잇...

魚油不定量
入札制廢止?
改訂協議會紛糾!

魚油販賣契約改訂會議는 既報한바와가티 二十四日부터 京城俱樂部에서 總督府 油肥聯及賣受業者六十餘名이 모히여 現販賣制度의 改革을 中心議題로運營協議中인데 不定量入札制를圍繞하야는 豫想以上으로 紛糾가 繼出하야 二十四、五兩日로는成案을 보지못하엿스나 大體右討議에서 産地側과 買受者間에原則的으로 다음과가튼 諸點이 一致되엿다

一、不定量入札制度의廢止 入札制度에서 不定量이라는것은 元來異例의것으로 어數的制限을 附하다는것은 不定量의 性質을 沒却하는것이므로 모름지기 廢止할것

一、保留制度의合理化 現在의保留制는 朝鮮內工場어라는特殊性을 考慮하는것인데 어것을다시 一般化한다

一、不定量廢止에伴하는 定量入札의具體的方法

一、保留制度의改善

올細目的으로 協議할豫定으로 基本契約의改訂은 卄七日로될豫定이라한다

朝鮮油脂
七社合併
千萬圓으로增資

朝鮮油脂에서는 經營의 合理化와 事業을 擴充키爲하야 今番傍系會社인 北鮮水産工業 公海興産 新興漁業 能美漁業 新浦魚糧 遞湖魚糧及 長箭魚糧의 七社를 合併하고 또 從來日本油脂 朝鮮支店水産部의 事業을 그대로 繼承하야 資本金百五十萬圓을 六百萬圓으로 增資하는同時에 右合倂에依한 四百萬圓增資 都合一千萬圓으로 增資하게되여 二月의 臨時總會에서增資를 決議하고 總督府에 認可申請中이든바 三月十九日附로써 認可되엿다 그래서 今後는 原料鰮의 魚撈를 비롯하야 加工課程의 第一步인 鰮油의 搾取 ...

朝鮮無煙炭
內地向値上

朝鮮無煙炭組合에서는 內地炭其他의引上에 追隨하야 本年度 內地向炭價를 噸二圓五十錢引上하엿다 本年度의 內地出炭豫定數量은 八十萬噸으로 年約二百萬圓의 利益增이될터로 이것은 工賃의 引上 其他生産費의 昻騰에 依하야 반드시 無煙炭業者의 利得이되는것이아니고 오직 이로因하야 增産의 傾向이 促進될수잇다고解釋될뿐이라한다

都市經營三次分讓

朝鮮都市經營의第三次分讓地二萬坪은 整地工事가 五月中에一段落됨으로 六月부터 分讓키로되바 住民建築도 十數軒을新設할豫定이라고

保險料月額 二百二十六萬圓

遞信局調査에依하면 朝鮮簡易生命保險의 二月末現在契約數는 內地人三十一萬六千 二百九十二件 朝鮮人九十八萬八千 八百六十七件 合計百二十二萬五千 百五十九件인데其百二十二萬六千五百八十九圓五十錢保險金額은 二億三千百五十八萬七千四百二十圓九十錢이라한다

京畿道漁業船
四月卄日頃廻航

京畿道水産試驗場 所屬의遠洋漁業指導船은 十二萬二千五百圓의建造費로써 大阪三原造船所에서 建造中이든바 本三月廿二日에 進水式도 終了하고 現在는 艤裝、機關의裝置等을 施하고잇는데 四月初旬에는 附屬設備도 完了될것이고 四月十日頃에는 仁川港에 廻航되여 廿日前後에 竣工式이擧行될豫定이라한다 또 同船은 도로-루設備를 施하야 十二節의速力을有한 二百馬力、七十噸의 最新式優秀船이라한다

硬化
都是鈍感場面

昨後場小波瀾後 反發强으로 硬化 止場한後議會는 會期一日延長으로 電力案等重要法案이 可決되어 강에 議會도 無事히 끗이며 도로혀 近來稀有의 暴落을 破하게되엇스나 어는 거의無響場面을보인 米國株式의 紊潮에 다시 人氣는 損傷된듯하야 市勢는 鈍化하고 따라서 仕手態度는 愼重하야 賣買어느쪽으로도 積極行動은 取하지안코려는 氣色이어서 傍觀的으로 賣買가 缺如되어 場面은 다운 一般閑散으로 되엇다 周圍의 諸情勢는 決코 株界를 悲觀에할條件이 업스나 이場面으로서는 懷疑的...

六十圓丁、鐘紡二百七十二圓丁으로 堅强히 大引되고 後場은 保合하고 例休하엿다

紐育株式慘落

米國의 景氣指數는 去二月에 昨年來의 最低記錄을示하야 國內經濟의 不振과 歐洲의 不安으로株式도 低迷狀態를 未免하고잇는바 今朝入電의 昨二十五日의 紐育市場에서는 스틸株가 四弗暴落의四十四弗四分三으로 新低價를 출하고 아닌곤다二弗八分七低인 二十五弗八分七、工業株六弗二仙低인 一〇八弗五七仙、鐵道株二弗四仙低인 一九弗九五仙의 暴落을 보엿는데 이는 昨日 稅制改革案反落된것을 三月委員會에서 議事促進動議가 採擇되엇슴에 不拘코 審議遲延에 悲惑的의 處分에이 나오게되고 또 商工界의 不振이 因한것이라하나 如何튼 米國景氣의 今後動向은 特히 注目을 要하게되엿다

市場消息一束

▲東邦炭倍額增資=【大阪電話同通】 東邦炭坑에서는 株主總會를 開催 現在의 資本金一千六百五十萬圓을 倍額인 三千三百萬圓으로 增資하기로 決定되엿다

▲大阪人絹前後場一節立會增加=【大阪電話通】 三品取引所取引員組合에서는 八日取引員總會를開하고 人絹前場二節 後場三節을 前場三節 後場四節立會키로 主務省에 認可申請中 認可되어 四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엇다

期米
高寄後에
反弛

前場高下 昨後場阪地小堅으로 氣勢挽回的氣配裡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大阪初付突破의 十一丁跳返인 五圓六十一錢을 擴하고 買氣刺戟되어 一碗히 買拾하며 當七七丁高인 一圓二十五錢中은 四丁安인 二圓五十九錢先은 五丁高인 二圓八十五錢으로 場을始한後 此에高買로 大阪은 四十六錢까지 拾하며 漸次下押風情을 呈하며 又復下騎하엿슴에 伴하야 當地亦買氣阻喪되여 反落의 勢로示하얏다가 五十錢中 五十錢先七十四錢을 富十六錢의 小反되더니 結局大阪止價四十九錢을보고 七十八錢에 止場하고 後場은 土曜로例休이엇다

意在欲仲商情

目前材料로는 擧論할것이업고 오직買上成績注視로 因한變方對時로 一弗一張의 保勢採合을繰返할뿐이어서 一戾後는 반드시 그만큼 低押行動을하다가도 忽然態度를 變更하야 賈至春季市勢의 伸力을 恢復하는 發揮하는러이다 그러나 本色은 ...

正米
依然不勢
閑散

京城不變 休日을압두고內外共不振으로 高價警戒가 嚴重하얏스나 一牙所持側도先高豫想으로 强硬不讓하야 低價는賣頑强을 繼續하고잇는어대라 商談어依然不進하고 閑散場面의推移이엇다 ㉥三等三一、〇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 一三、一〇

仁川保合 定期는 依然繁忙하나 小浮動保合일을觀米에押壓되여 市中內地側은 勿論大口筆하고 一般賣買를까지도 買氣薄의때이라고 休日을압두어 賣物이多少散見되나 價位不合으로 賣買가업서 閑散場面을 呈하얏다
穀 良三等 三一、〇〇 四等 三〇、七〇
銀坊主三等 三一、〇〇 四等 三〇、八〇
多摩錦三等 三一、五〇 四等 三一、四〇
一等白米 四三、三〇 ㉦ 三一、一〇

釜山强硬 月末接近과同時에 內地는多少活氣를 보히엿섯스나 依然賣物薄으로 豫想대로되지안어 賣買는보도가 小口에 ...

木浦同調 天候의恢復과同時에 廻米는漸次增加의 傾向이요 各地期米 依然强勢를喪失치안흐나 高價에 對하야서는 相當한賣物이 潛在한模樣으로 市勢는 伸悩이고 休日을압두어 地場賣買가잇섯스나 結局前價로 保合이엇다 ㉥銀坊主三等三一、一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 一三、〇五

群山少高 賣方共히買上結果의新動機待로 遲出치아니하나 奧地는 極度의賣米需要를 期待하야 依然賣惜하고 强硬하므로 正租의割高와 相俟하야 市中賣物薄으로 買進으로 市勢는 休日을압둔賣當精白側은 十錢의少高를示하엿다 ㉥銀坊主三等三一、八五 四等三一、〇五 一等白米 一三、一〇

大邱傍觀 淸算小高下反發과 新材料 皆無로 依然商談이 不勢키스운 場面의 推移로서 雙方共히 買上成績判明을 기다리고 持久戰을 繼續하고잇다 ㉥穀良三等三一、九〇 四等 三一、〇〇 七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五十錢高를 告하얏다 ㉥良三等三一、五五 四等三一、三一 五 一等白米 一三、一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中限、先限 各 會員別 取組高)

邱取「자라바」復活

【大邱電話通】 大邱米穀取引所에서는 二十五日午後四時부터同所樓上에서 理事會를 開催한結果 자라바立會를 復活키로決定하고 四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엿다

海外經濟 (二十五日)

銀行券 (二十五日)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 ◆大阪金利◆

鑛油粕·麥粉

◆阪神鑛粕◆ ◆阪神鑛油◆ ◆日本麥粉市勢◆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 ◆東京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株式

◆朝取短期◆ ◆朝取主要取組高◆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實定 代引 日步◆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綿糸 ◆大阪綿糸◆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糸 ◆橫濱生糸◆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今日財界 (卄六日)

◆米 (限位十錢)
大阪期米先限 / 京城白米一等 / 正租(川)一等 / 三等 不變
◆株 (限位單位錢)
東新 / 鐘紡 / 大阪 ...

京城物價 (卄六日)

▲白米(斤、單位錢) 多摩錦特 / 同 一等
▲麥(瑞穗號三二斤、單位錢)
▲肥料 大豆粕 / 硫安 / 過燐酸石灰
▲紙物(單位錢) 朝鮮唐紙(束) / 韓紙 / 洋紙 ...
▲石炭(單位錢) 朝鮮無煙炭 / 撫順塊 ...
▲石油 ...
▲洋灰 ...
▲砂糖(百斤單位錢) 白 黑 分蜜 ...
▲鐵物(單位錢) ...
▲海産物(單位錢) 明太 / 乾大口魚 / 鹽 ...
▲染料 ...
▲人絹 ...
▲木綿(疋、單位錢) 本朝紡 / 毛絲 / 高等文化紗 ...
▲牛皮(乾皮百斤單位錢) 京城 大皮 中皮 一等

期米 東益夏 仁川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長一九六二·三九六

水晶·鉛石 重石 分析·鑛石 買入 祿商會 京城鍾路一丁目三二